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이 돌아오시는 그 날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사망도 애통도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곧 임하리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 천국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 천국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종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했지만, 그게 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큰아들 캠이 2013년 11월에 갑자기 죽었을 때, 모든 게 바뀌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아들이 내 곁을 떠난 후, 천국은 이제 나의 일상의 모든 관점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말 그대로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 과거에 천국은 내게 지적 탐구의 대상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들이 죽은 후, 영원은 행동의 원동력, 나의 관점을 가능하게 필터가 되었다. 비단 비극을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삶에서 접하는 평범한 실감에도 위안이 되었다.



천국에 대한 더욱 고양된 의식(heavenly mindedness)은 내게 큰 만족감을 주었고, 고통 속에서도 인내할 힘을, 그리고 선교와 전도에 더 집중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통은 결코 내가 원한 게 아니었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한 그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속에 이루신 천국으로의 관점 변화는 내가 인생에서 만난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천국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천국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이유와 지침을 알려주겠다.

1. 우리는 천국을 철저히 미래의 상태로만 인식한다.

아들이 죽기 전까지 내게 천

국은 죽으면 갈 곳, 신학자들이 말하는 “중간 상태(intermediate state)”, 궁극적으로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가져오실 새 하늘과 땅이 오기 전까지 머무는 곳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천국에는 단지 미래의 상태라는 사실 외에도 더 많은 것이 담겨있다. 신약에서, 특히 바울의 서신과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지금 지시하는 구약은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날”과 다가올 시대를 하늘의 기대로 표현한다(골 2:1-11; 습 1:14-18).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악을 정화하고 원수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했다. 다가올 시대, 곧 하늘이 땅에 거하는 기간은 주님의 날이 도래하는 순간 따라올 것이다.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주님의 날의 일부로 본다. 고린도후서 6:2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실현되었고, 따라서 다가올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천국은 이 땅에 들어왔다. 그렇다고 이 사실이 “현재의 악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갈 1:4). 이 악한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끝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천국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 위치라는 측면에서 변화가 생긴다. 골로새서 1:13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거하

는 곳은 하늘이라고 말한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빌 3:20)고 말하는데, 그가 쓰는 용어는 현재 시점이다. 여전히 죄 많은 육신 속에서 타락한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 왕국에 거한 자이다.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에 이를 수 있다(엡 1:3). 우리의 죄성과 악한 시대와의 투쟁은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천국이 내리는 풍부한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깊고 풍부한 기쁨으로 가득하다.

(3면으로 계속)



### 아이들을 ‘진짜’ 세상으로 데리고 나가라

자연은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우리 가족은 최근 애플레치아 산맥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숲길을 오르고, 바위가 흩어진 강에서 놀고, 여름 햇살과 상쾌한 산바람을 만끽했다. 나는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고 해마다 여름이 되면 이런 탐험을 고대한다. 그리고 언젠가 그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충격을 받는다.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창조의 능력, 그리고 복잡한 설계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남긴다. 시편 기자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귍니다. 누가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시 104:10, 12-13).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서 종종 간과하는 결과 중 하나는 우리가 마치 세상 어디에도 다 있는 거 같지만 사실상 그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한마디로 있어야 할 장소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애초에 내가 창조된 장소, 이 지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9면으로 계속)



시론 백승철 목사

2면



목회단상곽덕근 목사

3면



푸른초장황의영 목사

4면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2024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안내
MOU Signing Ceremony Between GRS and RPTSE
GRS 신학교와 동부 개혁 장로회 신학교 MOU 체결 THURSDAY AUGUST 15TH 2024
2024년 가을학기에 국내외 저명한 상당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Th.M(성경적 상당학 석사)을 개설합니다.
Th.m(성경적 상당학) 원서접수 마감: 9월 14일(토)
www.rptseast.org



시론

그래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백승철 목사 (사모하는교회, 시인, 문학평론가)

교회가 잠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진다면, 가상으로 느끼는 상상이 아니다. 있던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이유는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미국의 종교단체 통계협회인 '미국과 캐나다 교회연감'을 인용해 2030년까지 문 닫는 교회가 최대 10만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존하는 개신교 교회의 20%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종교가 있다는 비율이 1990년에는 70%가 넘었지만, 현재는 45%에 불과하다.

미국 최대 개신교단 남침례회는 지난해 교인 수가 100년 만에 가장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남침례회 교인 수는 1,322만 명으로 2021년보다 45만 명 넘게 줄면서 100년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경우는 동성애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 차이로 2019년 이후 2000개 넘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등 분열의 조짐을 보였다.

한국도 탈종교화에 따른 교인감소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국내 무종교 인구는 63%, 이 가운데 40%가 과거 종교를 믿었던 사람으로 개신교인의 이탈률이 49%로 가장 크다. 목회데이터연구소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신일 교수가 공동으로 '한국교회의 명목상 교인의 비율'을 조사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여기거나(9.6%) 예배 외에 기도나 성경읽기 등의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6.7%),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필요에 국한되거나(26.5%)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19.3%) 등 다양한 양태로 나타났다.

응답자 열 명 가운데 4명이 명목상 교인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명목상 교인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인 수가 줄어드는 중요 요인 중 하나다. 국제기독교정보지 오퍼레이션 월드(Operation World)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60%를, 국제로잔은 44%를 명목상 교인으로 각각 추산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지용근 대표)는 지난 9일 '2024 미주 한인교회 실태와 미래'를 통해 미주 한인교회 교인 중 절반가량은 10년 뒤 한인교회의 쇠퇴를 예상했다.

교회가 사라지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다. 게다가 사방에 교인 수가 줄어드는 사회적 현상이 도사리고 있다. 사라진 교회 흔적을 지우고 그 공간에 상점,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음식점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굿 셰퍼드 루터교회'가 있던 곳이다. 1840년대 세워진 성공회 '성찬교회'는 나이트클럽, 시장, 현재는 음식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교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본질이 흔들리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그의 총만함이니라"(엡 1:23).

다른 이유는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훼손될 수 없다.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라지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 날까지 남은 교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교회 사이즈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회가 지구에 존재해야 될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몸부림 칠 때이다.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 강력한 처방이다.

www.epipodo.com

요한계시록의 '표'들,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한 성도로 인정받기를

열 살 때, 밤의 도둑(a thief in the night)이라는 종말에 관한 영화를 보았다. 종말의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한 영화였는데, 그 이미지는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도 나를 공포에 떨게 했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온몸을 마비시켰다. 주인공 중 한 명의 이마에 바코드 문신이 새겨지는 장면이 나를 얼어붙였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문신만은 안 돼" 하고 계속 중얼거렸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게 너무 무서웠던 나는 몇 년이 지나서야 요한계시록 안에 표를 받는 장면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서 그게 다 무서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는데, 어떤 장면은 심지어 나를 안심시켜 주기까지 했다.



이름과 함께 표시를 받다

요한계시록 13:16-17에서 우리는 짐승이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실, 이 표는 큰 흰 보좌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을 식별한다(20:11).

하지만 이 표는 신실한 성도들이 먼저 이마에 인장을 받은 게 확인된 후에야 언급된다(7:1-8 참조). 요한계시록 14:1에서 우리는 이 인장의 정체가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본다. 요한계시록에서 불의한 자들은 짐승의 이름으로 표시되고 의로운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표시된다. 구원을 위한 이런 식의 표시는 일상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얼마 전,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대학 때부터 간직해 온 카세트 플레이어 발견했다. 카세트를 뒤집을 때에야 나는 플레이어에 조각 도구로 새겨진 그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결혼하고 나는 남편 가족이 전자 제품에서 해변 타월까지도 자기 물건을 자신이 잘 챙기도록 모두 이름을 새기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신혼집에 들고 온 남편의 모든 물건에는 당연히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표시를 가진 사람들, 다름 아니라 누가 하나님에게 속하고 누가 아닌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원을 위한 인장

성도들이 이마에 인장을 받는다는 말을 듣기 전에, 우리는 다른 세부 사항들을 먼저 듣는다. 흰옷, 분향과 같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음. 그들의 옷은 제사장의 옷이며, 그들이 거하는 곳은 제사장이 예배하는 장소이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왕국과 제사장이 되었다"(5:10; 1:6; 20:6 참조)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6에서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다. 여기서 이마의 표는 또 다른 의미의 중요성을 차지한다. 출애굽기 28:36-38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마침내 완전히 "주님께 거룩하다."

주님의 인장은 이 세상에서 미래와 관계없이 다음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케 한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인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시다"(엡 1:13). 이미 받은 표시는 없앨 수 없다. 우리의 운명은 이제 영원히 봉인되었다.

거룩을 위한 인장

짐승의 표가 너무 무서웠던 나는 주님의 표가 주는 놀라운 위안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또한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그 속에 내포된 중요한 의미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삶에서도 그 표에 따라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표를 받은 사람들"로서 말이다.

대제사장은 "주님께 거룩함(주님의 성직자)"이라는 패를 "항상 이마에" 달고 있었다(출 28:38).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어디를 가도 붙이고 다녔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패적이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야)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5시)(미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도서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이반넷(뉴욕, 미국), 크리스천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구입처: 미주내 기독교 서점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래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 교회가 행해야 할 배려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던 알란 그로브라는 교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분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나중에는 그분은 히브리어에

에서 독보적인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초에 59세였던 아버님이 백혈병이 걸려 저를 매일 신학교 동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해진 아버님이 이른 나이에 중병

에 걸린 것이 너무 마음에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란 그로브 교수님이 저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무실로 가게 되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많이 힘들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지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말하기를 밤마다 누군가 뒷동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여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잠을 잘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았더니 데이비드가 아버지 때문에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 밤에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숙사의 학생들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미처 생각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백혈병에 걸려 그러니 너희들이 이해하고 잘 참았으면 한다

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앞으로 그런 말이 들려도 계속 기도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와 이분은 참 특이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 학생이 참아 줄것을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그날부터 저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장소를 찾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분의 배려는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해 어렵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참아주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권세자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고 주로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주변엔 언제나 세상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여인도 있었고,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상스럽게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철학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깨달음을 저도 모르게 갖게 되니 저절로 목회를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형편이 좋은 사람만 찾아간다는 말을 듣

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불평이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분들은 정말 목사가 필요해서 찾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 백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게 되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찾으러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배려하시는 귀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연약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배려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런 사람은 없어도 돼가 아니라, 저런 사람이 사랑의 배려를 받고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못나고 연약해서 세상에서 처절히 버림을 받는 수모를 겪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david2lord@hotmail.com

### 푸/른/초/장

황의영 목사

(The Three goals of SBM 대표)



마가복음은 첫머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실로 장엄한 선포에 이어 이사야 40:3의 예언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안내한 세례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막 1:1-3).

마태복음은 이사야 9:1-2를 인용하며 예수님의 공생애 출발점을 밝혔습니다(마 4:15-16).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사야 61:1-3 절을 찾아 읽은 후에 이 말씀이 오늘 응했음을 증언하셨습니다(눅 4:16-21).

이처럼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사 7:14)을 비롯하여 십자가의 수난 현장을 실감 있게 소상히 기록했습니다(사 53:1-10). 더 나아가 특별히 선교시대의 이상을 내다보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여러모로 예언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본문을 심도 있게 상고하며 시대적인 사명과 역사적인 과업을 구체적으로 조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문을 통해 “깃발을 높이 들라”는 제목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하반 절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의 다양한 영어 번역을 보겠습니다.

- (1) "lift up a standard for the people." (KJV)
- (2) "Lift up a banner for the peoples!" (NKJV)
- (3) "Raise a banner for the nations." (NIV)
- (4) "lift up a standard over the people." (NASB)
- (5) "lift up an ensign over the people." (RSV)
- (6) "raise the flag of Israel." (TLV)
- (7) "Put up a signal so that the nations can know." (GNB)

여기 기록된 standard, banner, ensign, signal은 모두 단수(a)로 표시되고 The Living Bible은 "the flag"라고 관사를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표지판은 본질과 특징이 오직 하나(십자가) 뿐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banner"의 뜻은 명사로 (1) standard, flag, colors, ensign, pennant, (2)기치, 표지, 슬로

건, 주장. <안내판, 현수막> 그리고 형용사로 (1)일류의, 가장 뛰어난, 최상급의, (2)outstanding, most successful, notable, leading, record; profitable, winning, pendant, streamer, burgee. - (1)기(旗), 국기, 군기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highway)을 닦고 닦으라. (4) 돌을 제거하라. -그런 다음에 (5)깃발(banner)을 높이 세워 만민이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알리라고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새로 닦기 위해 먼저 측량한 도면에 따라 땅을 평평

핀 Legaspi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또 우리가 새로 건축한 기념교회 헌당예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텔이 있는 그곳 Legaspi 시내의 길이 좁고 골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번지는 물론 코너에 길이 이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면 도로가 여러 지역으로 갈라졌는데 역시 높이 세워진 안내판이 없고 길 이름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안내를 받지 않고는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오늘날 올바른 방향을 잃고 매우 혼란한 영적 상태와 같습

인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50세 되던 1989년, 1961년부터 시작한 전반기 국내의 목회와 교회사역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작전타임을 가졌습니다. California 산속에 있는 Los Angeles Prayer Mountain 작은 캐빈(cabin)에서 9월 1일부터 33일을 혼자 금식하며 그동안의 내용을 일일이 점검(진단)하면서 시행착오와 많은 잘못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내다보며 참신한 시대적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두 번 읽은 가운데 특히 이사야 46:10-11, "내

purpose, so it will happen)...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폐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는 말씀에서 특별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본문 26절, "This is the plan determined for the whole world; 이것이 온 땅을 향해 세워 놓은 계획이다"(새번역) 라는 말씀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성실히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도록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앞으로 한국 교회를 비롯, 세계 교회가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과업을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상했습니다. 그 핵심을 첫째, 말씀의 신화화; 둘째, 신앙의 생활화; 셋째, 생활의 문화화로 요약했습니다. 영어로는 (1) Serving God First./신 6:4. (2) Biblically Applied Life./수 1:8. (3) Model for Enculturation./요 13:15 으로 묘사했습니다. 아울러 3대 과제 (3 Strategy)로 (1) From Scripture to Faith; (2) From Faith to Reformed Life; (3) From Life to Christian Cultural Impact를 제시했습니다.

그 후로 그 핵심 목표와 전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놓고 30년 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ECHOING MINISTRY"라는 성경 교육과 목회원리를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에코웨이 학습원리』(Principle of Echo way Learning)와 『ECHOING Ministry』(메아리치는 목회)를 저술하여 학문적인 기초를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온 민족을 향한 "Banner"임과 동시에 시대적인 사명이며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위의 3대 목표(모토)와 과제를 도입하고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 교회들이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생활현장에서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행 1:1). 깨우친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면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주실 것입니다. 다같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sbmusa@hanmail.net

## 깃발을 높이 들라 "Lift up a banner"

### 이사야 62:10



이 본문을 번역한 우리말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 (개역)
- (2)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개역개정)
- (3) "뭇 백성 위로 깃발을 올려라." (우리말 성경)
- (4) "은 세계가 알 수 있도록 기를 세워라" (현대인의 성경)
- (5) "뭇 백성 앞에 깃발을 높이 올려라." (공동번역)

이를 위해 전제된 앞부분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1) 나아가라, 성문들로 나아가라(통과하라) (2)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예비하라. (3) 큰 길(the

하고 골게 만들어야 합니다. 높은 곳은 깎아내리고 낮은 곳은 메꾸고 당연히 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큰 산들은 터널을 뚫고 강에는 다리를 놓고 계곡은 교각을 세워야 합니다. 위험 지역은 도로변에 가드레일을 든든히 만들어야 하고 당연히 아스팔트로 깨끗하게 포장을 잘 해야 합니다. 물론 차선을 선명하게 그어놓아야 합니다. 특히 중앙선이 뚜렷해야 양쪽 방향에서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깔끔하고 완벽하게 고속도로를 잘 닦아 놓고 완공했어도 아직은 개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지난 6월 3일부터 필리

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세계 교회와 민족들(nations)이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한 목표를 향해 가도록 큰 길을 닦고 BANNER를 높이 들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물질주의와 종교다원주의로 어지러운 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사명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배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 공감하는 성경적인 모토(a motto)와 슬로건(a slogan) 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오래 전부터 개

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까지 나의 뜻이 잃지 않고 정확한 목표를 향해 가도록 큰 길을 닦고 BANNER를 높이 들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물질주의와 종교다원주의로 어지러운 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사명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배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 공감하는 성경적인 모토(a motto)와 슬로건(a slogan) 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오래 전부터 개







#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 “다아스포라의 중심이 되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싱가포르 다음으로 국가이지만 말레이시아는 큰 국토에 다수의 인종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두 개의 큰 영토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섬 북쪽의 동말레이시아와 말라카 해협의 서말레이시아로 넓게 퍼져 있는 말레

시아는 말레이 종족이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땅의 주인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들은 말레이 종족이 땅의 주인인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그들을 이슬람 종교로도 묶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인종들에게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꾸준히 근로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축소판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곳이 말레이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계 전역에서 젊은 일꾼들이 더 나은 봉급을 받으려고 근로자로 이곳저곳으로 떠나는 추세입니다. 이곳 말레이시아도 많은 근로자들

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국가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또 한국 같은 곳으로 또다시 떠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자국을 떠나야만 하는 난민들이 거쳐 가는 나라로서 점점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가장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중에 그동안의 문화적인 종교에서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MBB (Muslim Background Believers) 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말레이시아로 들어온 다아스포라가 되기에 아마 21세기에 가장 뜨거운 선교지로 각광받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친척 아버 집

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민족이 자기 태어난 곳을 떠나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사회를 만드시면서 복음이 편안하게 전파되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나라 잃고 집 잃고 난민이 되어 정착없이 떠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희망을 보았고 새로운 말씀을 접하고 새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언어 또한 모두가 자신들의 언어 외에도 간단한 실용적인 영어를 사용하면서 삶에서 다른 인종들과 문화적인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다아스포라 현상은 정도 차이만 있지 말레이시아의 특성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21세기 우리 주변에 많은 인종들을 섞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런 모습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눈을 뜨면 점점 더 많아지고 섞여 살아가는 다인종 사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아스포라인 우리에게 또 다른 다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변의 변화에 눈이 뜨여서 쓰임 받는 한인 이민교회가 되고 선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gypaek@hotmail.com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 “예배에 집중하려면 스마트폰 끄세요”

예배 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예배 분위기를 흐리거나 사용자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주의력도 약화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 기기 발달로 교회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증가하는 세대를 지적한 것이다. 라이프 웨이리서치의 전 대표이자 교회성장 전문가인 톰 레이너 목사는 최근 처치앤서스 홈페이지에 ‘예배에서 회원들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레이너 목사는 30년 이상 담임목사, 임시목사, 또는 초청 목사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다 8년 전 설교 초대를 거의 거절하기로 결단했다고 한다. 그는 “다른 교회에서 설교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회원으로서 지역교회에서 활동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그는 책 ‘아임 어 처치 멤버(I Am a Church Member)’를 저술했지만 적어도 자신이 교회 회원의 관점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교회 회원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는 교회에서 생각지 못한 풍경을 발견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배 도중) 받은 알람을 클릭하고 있었다. 레이너 목사는 “지난해 가을 한 교회 성도가 그 주의 대학 풋볼 순위를 보고 있는 것을 어깨 너머로 봤다”며 “부끄럽게도 제가 해야 할 것보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성도들) 더 오래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회의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 예고편에서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기를 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선 극장이 교회보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기준이 더 높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레이너 목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배 도중 성도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예배를 방해하고 사용자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주의력도 산만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스마트폰에는 중독성 있는 콘텐츠가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그는 “Z세대는 소셜미디어 접속뿐 아니라 유희한 사이트가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뒤 불안증세, 우울증, 자해, 자살 증상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교회가 스마트폰 없이 성경을 읽거나 메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설교 내용을 키보드가 아닌 펜으로 필기하는 것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커뮤니티 활동으로 공동체 경험을 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공동체가 아닌 고립으로 내몰다”며 “예배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전화에 더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2000년 전 예수 시대 램프·식기 등 유물 발굴

“사람이 등불(lamp)을 켜서 말(bowl·basket)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stand) 위에 두나니...”(마 5:15)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산 위에서 전한 설교에 등장하는 똑같은 형태의 램프가 이스라엘에서 발견됐다. 이스라엘 문화재 관리국(IAA)은 최근 고대 예루살렘 주민들이 사용하던 식기와 음식 잔해물, 램프 등 유물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 당시 도시 상황을 보여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화를 나눴던 주민들의 흔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발굴 작업은 로마군에 의해 파괴된 성전 일부분인 서쪽 벽(동쪽의 벽)과 다윗성 근처에서 진행 중인 발굴의 일환으로 다윗성재단(The City of David Foundation) 지원으로 고대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하는 주요 배수로에서 이뤄졌다. 해당 배수로에는 예루살렘 파괴 전 수십 년간 성전산 기슭에 변장했던 시장을 비롯해 다윗성 주변의 여러 시설을 통과하며 지하 동맥 역할을 해왔다.

물에 쓸러온 진흙 속에서 보존된 유물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상태였다. 향수나 값비싼 기름을 담을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유리병은 거의 부서지지 않은 채로 발견됐으며 기름 램프에는 당시 그늘음이 남아 있었다. 이 밖에 다양한 동전과 구슬, 도자기도 당시 상태 그대로 묻혀 있었다. 식재료도 여럿 확인됐다. 달걀 껍데기나 생선 뼈, 포도, 올리브 씨앗, 곡물 알갱이도 나왔다.

이번 발굴을 지휘한 아이엘릴 질버스타인 박사는 “예루살렘의 주요 도로 위에 있던 삶의 잔해가 도시가 파괴된 순간과 똑같이 보존돼 있었다”며 “발견물들은 예루살렘 전성기부터 쇠퇴기, 성전과 도시가 파괴된 이후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강후구 서울장신대(성서고고학) 교수는 “유물 중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던 당시 주민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램프는 1세기 시대 형태이며 예루살렘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관리장성에도 음류수 배달” 中 드론배송 서비스 개통

중국 베이징의 관리장성에도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작됐다. 중국은 드론 등을 활용한 저고도경계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19일 중국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배달업체 메이투안은 지난 16일 관리장성 팔달령 구간의 남구성루까지 드론 배송을 시작했다. 베이징에선 첫 정식 드론배송 서비스다. 고객은 남구성루에서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 생수, 약, 음식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배송해준다. 주문부터 배송까지는 빠르면 5분 만에 가능하다.

남구성루는 지난해 말 처음 개방된 곳으로 월형을 보존하기 위해 상업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생수나 음급의약품을 구하려면 30분 가까이 걸어야 했지만, 드

론 배송으로 시간이 대폭 짧아졌다. 드론은 배송을 마친 후 복귀하면서 쓰레기도 수거한다. 메이투안의 드론사업 관계자는 “메이투안의 배송 드론은 베이징·선전·상하이·광저우 등의 30여개 노선에 취항해 30만건 이상의 주문을 배송했다”면서 “사무실, 마을, 관광지, 공원, 응급의료시설, 대학 캠퍼스, 도서관 등 다양한 곳에서 9만종 이상의 상품을 배송한다”고 밝혔다.

팔달령이 있는 베이징시 옌징구는 중관춘 저고도경계산업단지를 유지하는 등 드론을 지역 4대 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고 있다. 옌징구는 생태 모니터링, 관리장성 보호, 도시 물류, 지식 물류, 문화관광 체험 등 6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옌징구는 중국 민항국에서 승인받은 베이징 유일의 ‘민간 항공 시험구’로서 374km<sup>2</sup>의 공역을 확보하고 있다.

## 필리핀서도 엠폭스 확진자 나와... “해외 여행 기록 없어”

스웨덴, 파키스탄에 이어 필리핀에서도 엠폭스 확진자가 나왔다. 필리핀 확진자는 해외에서 감염된 후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보건부는 19일(현지시간) 33세의 필리핀 남성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 엠폭스가 확진됐으며, 이 남성은 필리핀 밖 여행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필리핀 보건부는 이 남성에 대해 “1주일 이상 전부터 열이 나면서 증상이 시작됐고, 나흘 뒤 얼굴, 등, 목, 몸통, 사타구니, 손바닥과 발바닥에 뚜렷한 발진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올해 필리핀에서 발견된 첫 엠폭스 감염 사례이다. 필리핀에서는 2022년 7월 첫 엠폭스 환자가 나온 후 지난해 12월 9번째 환자를 마지막으로 엠폭스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15일 아프리카 대륙 외 처음으로 스웨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이 환자는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방문객이었다. 16일 파키스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환자는 중동 국가에서 돌아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4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빠르게 확산하자 공동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이 질병은 독감과 유사한 증상과 고름으로 가득 찬 병변으로 이어진다. 엠폭스는 주로 유증상 감염 환자와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감염된 환경과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 하루 150명 징집병 백기 투항...본토 뚫린 푸틴 골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징집병 수백명이 백기 투항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국경을 넘어 러시아 쿠르스크로 진격해 현재까지 하루에 최대 100~150여명의 러시아 징집병을 포로로 잡아들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의 군정 책임자인 올렉시 드로즈덴코는 국경을 지키는 러시아군 대부분이 어린 징집병들이라면서 “그들은 우리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기습 공격 이후

현재까지 전쟁포로 2000여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매체가 공개한 심문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 징집병 포로들은 주로 10대~20대 초반의 어린 소년들로, 심문 과정에서 제대로 된 무기나 군사 훈련 없이 전장에 투입됐고, 상관들은 초소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했다.

국경 외부 배치가 범으로 금지된 징집병 수백명이 포로로 붙잡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징집병을 전쟁에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징집병의 가족들은 최근 푸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 우크라이나와 가능한 한 빨리 포로 교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부 하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19세 징집병 비탈리 이즈마일로프의 어머니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군은 아들이 다른 지역으로 훈련을 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이라고 했지만,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 체첸,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징집병의 파병을 두고 징집병 부모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적이 있어 푸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바이든 눈물의 고별 무대... 대의원들 “고마워요” 연호

미국 민주당 전당 대회가 개막한 19일 대회장인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니타이드센터에는 민주당 전현직 주요 인사와 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중산층 출신으로 검사 경력을 가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억만장자 사업가로 중범죄 혐의 재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이를 부각시키며 대의원을 결집시켰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전당대회 주인공인 해리스 못지않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조연이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해리스보다 먼저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지만 트럼프에게 아쉽게 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를 직격했다. 클린턴은 트럼프가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 외교’를 이어간 것과 관련해 “그녀(해리스)는 결코 독재자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는 검사로서 살인자들과 마약상들을 잡아들였다.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았다”며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재판에서 잡이 들었고 잠에서 깬 뒤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었다. 34개 중범죄 혐의를 갖고 대선에 나서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역사”라고 꼬집었다.

이날 전당대회는 당을 위해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을 각별히 예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의원들이 “우리는 조를 사랑한다. 고마워요 조”를 연호하는 가운데 바이든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사퇴를 주장한 사람에게 화가 났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면서 “나는 내 나라를 더 사랑한다”고 말했다.

당내 진보그룹의 차세대 주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자신이 의료보험 없이 웨이트리스로 생계를 이어가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적”으로 하원의원이 됐다면 “같은 희망과 염원으로 해리스와 팀 월즈를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당대회는 초반에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로 진행되다가 ‘민권운동의 상징’ 제시 잭슨 목사의 과거 영상이 나오자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영상이 끝난 뒤 잭슨 목사가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라왔고, 파킨슨병 때문에 연설을 하지 않았지만 대의원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했다.



#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97. 고창덕(1871-?)

고창덕(古昌德)은 1871년 7월 28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1905년에 청년의 꿈을 꾸고 멕시코 유카탄으로 이주하면서 그는 고호세(Jose Coh)로 통했다. 노동 기간이 끝나던 1908년 10월에 메리다에서 한인 전도회가 조직되고 성경 공부와 예배를 시작할 때 고창덕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대한인 국민회에 파송한 황사용과 방화중이 방문하여 100여 명이 모여 한인교회를 세울 때 고창덕이 본 교회 개척 멤버였을 것이다. 그해에 조직된 대한인 국민회 메리다 지방회에도 그가 가입하였다.



맛단사스 한인 감리교회 (태평양을 가로 지른 무지개)

을 후원하였고, 그해 12월에는 한국에서 수재 당한 자들을 위하여 2원을 보냈으며, 1924년 1월에는 병환으로 고생하는 서문경의 부인을 위해 2원을 기부했다.

고창덕이 1925년 6월에 대한인 국민회에 국민의무금으로 10피소를 냈다. 그와 함께 김봉희 등 9명이 모두 10피소를 낸 것으로 보아 의무금이 10피소였던 것 같다. 의무금은 교육, 실업 진발, 자유와 평등을 추창하고, 조국 광복을 일조하는 데 쓰였다. 그해 12월에 맛단사스 지방 회장 취임식이 있었을 때 고창덕이 사회와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그가 총무로 소개됐다. 이듬해 고창덕은 한인 자녀를 위한 민성국어학교의 감사원을 맡았다.

1929년 7월 28일에 고창덕은 회갑을 맞았다. 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한 일반 친우에게 자신을 맛단사스 한인교회 '연보' 집사로 소개하면서 감사하는 글을 1930년 1월 16일에 신한민보에 게재했다. 술 등 선물 내용이 이색적이다. 박창운이 안경 1개, 술 한 병, 버선 한 켤레, 서문경이 음식 전부와 의복 한 켤레, 이세창이 연초 1통, 차회관이 상의 1개, 방영일이 술 한 병, 이우식이 술 한 병, 한명희가 술 한 병, 이흥식이 술 한 병, 김봉희가 등 50선, 김석봉이 수박 한 개. 그런데 당시에 기록하여 보냈다는 메모는 신한민보사에 도착이 되지 않았고, 12월 31일에 재차 기록하여 보낸 메모가 도착하여 "만시지탄이 없지않았으나 이에 소개한즉 독자는 용량하시옵"이라고 신한민보사 편집실에서 기사에 덧붙여 고창덕의 늦장 부림이 아님을 밝혔다.

### 맛단사스 한인 감리교회 총무 집사

맛단사스에서 예배를 드린 지 8년이 되던 1929년에 미국 북감리교회가 쿠바 동양 연회를 조직하였다. 그해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쿠바 동양 연회는 프르르 S. 레이나 목사를 한인 교회로 파송하여 한인 감리교회를 조직했다. 레이나 목사는 장영기를 목사로 안수하였고, 고창덕 외 방영일, 이우식, 차회관, 고창덕, 태덕일, 호근덕을 집사로 선임했다. 최초 쿠바 한인교회 7명의 집사는 세계 최초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를 연상케 한다. 고창덕의 집사직은 회갑에 이어 두 번째 축복이었다. 그날 등록된 교인은 53명이었고, 25명으로 주일 학교를 조직했다.

맛단사스 한인 감리교회는 그해 11월 8일에 교회 역사와 교회 조직에 관하여 신한민보에 아래와 같이 게재하였는데 게재된 그대로 옮겨 '아래 하자'를 제외한 당시의 평안도 글투로 읽어 본다. "구주 강생 일천 구백 이십구년 십일월 팔일 쿠바 맛단사스 지방에 거류한 대한인 예수 교인 일동은 각처에 거류하시는 일반 형태자매에게 근고하나이다. 임이 아시난 바와 같이 현금이 나라에서 손노릇한 우리 한인 수백 명은 일천 구백 오년에 조국을 리별하고 일척 삼십이여 무서가 유카탄으로 이민한 지 사년 후에 미주로서 황사용과 방화중 양씨가 왕립하시와 교회와 사회를 조직하였습니디. 그 시 예수 교회 신자가 백여 명에 달하여 매우 자미하였습니디. 그러나 시세가 변천됨을 따라 일반 동포의 생활란이 극도에 달한 거로 행여나 살 길을 차를가하고 일천 구백 이십일년 삼월경에 우리 남녀 동포 이백여 인이 다시 데이 고향인 멕시코를 떠나 쿠바로 이거하게 되야 동년 사월 초순에 마나티 지방에 도착하여 있다가 또다시 오월 중에 맛단사스 지방으로 옮겨 온 후에 교회를 창설하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여읍니다. 그러나 이 나라 형편이 또한 각색 직업과 로동이 곤란함을 따라 일반 교우들의 물질력이 박약한 관계상 교회 발전이 못됨을 항상 유감으로 알던 바 맛참 우리 본국에 가서 십여 년 동안 전도 사업에 종사하시던 미국인 미스 벨 독가란 부인이 쿠바에 전도 사명을 띠고 왔다가 우리 한인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차차와서 우리 일반 동포와 피차 교섭상 경애함과 친절함이 우금 른년 동안에 교회 일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게 되었습니디. 그이의 주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목사까지 선택하여 이 나라 교회에서 각처 교회 목사와 여러 장로들과 거 십월 이십삼일 수요일 하오 삼시에 집회하여 미국 감독이 목사 장영기씨에게 안수례를 거행하고 교회 집사 7인까지 선택하였습니디. 그러나 이 사정을 즉시 일반에게 소개하지 못한 이유는 범사가 곤란한 교회에서 모든 것을 의론하여 실행하기 때문

이와 같이 천추되었습니디. 본 교회 전후 력사는 후일 다시 공포하고자 함으로 아직 이만치 기록하여 신한민보에 게재하여 일반 내의 교우들의게 경고하는 바 모든 형태자매께서 본 교회를 위하여 기도 만히 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본 교회 목사와 직원의 씨 명은 여하함니디. 목사: 장영기, 집사: 방영일, 리우식, 차회관, 고창덕, 태덕일, 호근덕.

쿠바 맛단사스 대한인 민성 국어학교는 1930년 7월에 남녀 학도들이 시험을 치르고 난 뒤 매우 취미 있는 순서가 있었다. '무궁화가'를 부르고, 국기와 민기에 경례한 후 본 지방 교회 집사 고창덕이 기도하였다. '한반도'를 부른 후 갑, 을, 병, 정 등 4반의 1등과 2등에게 진급 증서와 선물 분배에 이어 학도 일동이 '부모의 은덕'가를 부른 후 학생들이 연설하였다. 갑반에서 1등 한 여학생 박선녀의 연설을 아래에 소개한다: "지금 우리가 할 연설 문제는 '국가 사상과 동포의 애정'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먼저 할 말은 '나의 책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곧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순종하고 형제를 우애하며 일가의 화목을 하며, 동족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려면 또한 마음을 잘 먹고 잘 배우기를 힘쓰고 거짓말 아니하고, 같은 동무끼리 욕도 아니하고, 동무끼리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인데 제일 먼저 많이 잘 배우서 나보다 모르는 아이를 잘 가르쳐 주기로 작정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더라도 배우지 못하고는 아무리 하려 하여도 할 수 없습니디. 그러므로 우리 일반 학도들은 힘써 배우서 우리나라 독립 찾아 우리나라 한국기를 세계에 날리며, 국기 밑에서 만세를 부르며, 영원토록 살기를 바랍니다."

1935년 말에 망명회로 모여 송구영신을 의미 있게 맞았다. 기쁨진 큰 소한 마리를 잡아서 남녀노소 동포 116명이 모여 저녁을 먹은 후 임천택의 사회로 '무궁화가'를 합창하고, 국기와 민기 경례식으로 막 열려, 지방회장 이세창의 취지 설명 후 2분간 묵도하고, 조덕중과 박창운의 송구영신 감상담이 있고 나서 고창덕 등이 광복 사업에 대하여 연설하였고, 만세삼창으로 폐회하고, 춤과 식사로 친교하였다.

1936년 이전부터 고창덕은 총무 집사로 쿠바 맛단사스 한인 감리교회를 섬겼다. 그해 12월에 7, 8 주간 병으로 고생했을 때 이우식, 이승택, 태덕일, 임천택 등뿐만 아니라 서문경 부인, 박창운 부인, 임병일 부인, 호근덕 부인 등 부인들도 음식과 과일을 제공했고 간호하였으므로 그들의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대한인 국민회 맛단사스 지방회 청년부가 창립 1주년을 맞아 1937년 3월 10일 저녁 7시에 총장 이승택의 사회로 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고창덕은

박두헌과 함께 축하 순서를 맡았다. 이날 남녀 학생들은 '삼천리 강산'과 '조선 청년의 노래'를 합창했다.

1939년 구주 성탄 축하식에 연극이 특별했다. 김보배 등 10여 명의 등장으로 성극을 출연하여 내외국인 청중의 흥미를 돋웠다. 이들 2세 소녀들이 빛이 밝고 맵시 있는 한국 차마저그리를 입고 나와서 원형으로 돌면서 애국가를 합창하고 대한 만세를 부르는 가운데 휘장이 내릴 때 박수갈채가 장대를 휘둥그레졌다. 청중의 요구에 재차 나와서 '애국가'와 '만세'를 부르니 다시 장대에서 한국 부활의 기상이 자못 힘있게 나타났다. 성탄 축하식을 위하여 고창덕은 최고 기부액인 3원을 후원했다.

1940년과 1941년에 고창덕이 대한인 국민회 맛단사스 지방회 대표원으로 활동하면서 1940년 6월에는 광복군 후원금으로, 그해 7월에는 내지한재 의연금으로, 그해 9월에 서문경의 병원비와 이현순의 첫돌 기념비로, 1941년 1월에 광복군 후원금으로, 그해 2월에 이세창의 병원비로, 그해 11월에는 카르테나스 동포 구제금으로 고창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나누어 후원했다.

맛단사스 한인 감리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되던 1941년에도 고창덕은 이우식과 호근덕과 함께 집사로 재직했고, 전도사는 양준명이었다. 교인은 남녀를 아울러 20여 명이었고, 임경옥과 박선녀 등은 신진 인물이었다.

순국 선열 기념식이 맛단사스 지방회의 주도로 1944년 11월 17일에 있었다. 아침부터 지방 회관에 반기를 달아 조례를 표했고, 오후 6시에 대한 여자애국단 맛단사스 지부 단원과 국민회 지방 회원이 모여 기념식을 가졌다. '애국가' 합창에 이어 국기에 경례, 식사, 선열 역사 보고, '추도가' 합창, 헌화, 목상이 순서대로 있었고, 고창덕 등 4명이 기념사를 담당하였으며, 구호와 만세로 마쳤다.

1944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에 성탄 예배를 드린 후 총무 집사 고창덕 등은 기부하신 동포에게 감사를 표했다. 기부한 명단에서 당시 교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고창덕이 7월 40전으로 제일 많았고, 적게는 30전이었다. 그 외에 기부자는 박창운, 김덕서, 권달수, 이우식, 호근덕, 이세창, 김흥서, 주한옥, 임병일, 현미숙, 박선녀, 임천택, 차회관, 이승준, 차용섭, 기한묵, 김명구, 동모진, 류혜경이었다.

고창덕의 마지막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연보 집사와 총무 집사로서 교회를 섬겼고, 때마다 최고의 금액으로 헌금했다. 그리고 대한인 국민회 맛단사스 지방회에서 부회장, 학무원, 대표원 등을 맡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후원하였다. 고창덕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damien.sohn@gmail.com

#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b>감사안인교회</b></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 오전 5:30(월-금)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상)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 오전 5:30(월-토)</p> <p>lbfqusa@yahoo.com / www.lbfq.com Tel: (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남가주든든교회</b></p> <p>담임목사: 김홍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 오전 6:00(월-금)</p> <p>Tel: (714)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b>남가주사랑의교회</b></p> <p>담임목사: 노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결혼 이혼: 오후 2:00 영양 (점심/KDC, 김명림센터) 금요예배: 오전 9:10 2부: 오전 11:1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동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백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710)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b>미주양곡교회</b></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 오전 5:30(예배)</p> <p>Tel: (310)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백기도: (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ccls.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b>복음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베델한인교회</b></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1:30(수영장),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ible@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b>세계세망교회</b></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alencia Blvd., LA, CA 90015</p>	<p><b>세계선교교회</b></p> <p>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평일) 세백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927 / www.wmcls.com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p>
<p><b>실버치 사랑교회 (Sea Beach Se-Feng Church)</b></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버치 리저랜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부)</p>	<p><b>열매교회</b></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b>엘피스지역원</b></p> <p>원장: 박순홍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합동목사) 성경사역: (월-금) 오전 9:45 (본당)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결집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일할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Tel: (213)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b>은혜한인교회</b></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양예배: 오후 7:30(월-토) 세백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714)446-6202, www.graec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세운교회</b></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b>주님의영광교회</b></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b>좋은마을교회</b></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송고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백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b>코너스톤 교회</b></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b>토렌스조은교회</b></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세백기도: 오후 8:00(본당) 세백기도: (월-토) 오전 5:30(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평강교회</b></p> <p>담임목사: 송금란</p> <p>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의 교회: 오후 1:00 TEE-동요부흥성(주일): 오전 9:30 화요 3.3기도회: 영동동복주 9:30 목요 거리기도: 오전 9:00 TEE-성경말씀(금): 오후 7:30 세백기도(토): 오전 6:00</p> <p>Tel: 213-383-9136, pyongg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li> </ul>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li> </ul>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클린제일교회)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I. 칼빈이 생각했던 경건

4)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칼빈의 견해에 나타난 경건 추적

(1) "기독교강요"에서 '경건'에 대한 내용

우리는 칼빈의 언행에 드러난 경건(pietas)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

의 틀에 맞추어 쓰였다. 제네바에서는 「고백록」과 1537-38년에 쓰여진 「교리문답」을 받...

판 「기독교강요」독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기독교강요」를 여러 판 내면서 그의 사상이 진...

5)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라는 논문을 통한 칼빈의 계속되는 순례 여행

(1) 우리는 이 논문에서 철학자들의 글과 성경의 차이에 대한 칼빈의 깊이 있는 성찰을 볼 수 있다.

칼빈은 회심을 하면서부터 이미 그리스와 라틴 사상가들의 저서들을 도덕적인 지침서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성경과 이들 문헌들의 차이점이 더욱 날카롭고 자세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 문헌들은 여전히 칼빈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칼빈이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칼빈이 거부한 것은 스토아 철학의 운명관 및 열정이 결여된 '지혜자' 개념, 그리고 동정심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이 회심 이전에도, 그의 '세네카 관용론 주석'에서도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이 같은 태도를 보인 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러나 신을 따르라는 스토아주의자들의 요구와 인간이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들의 주장, 또한 중용과 겸양을 외치는 그들의 설교는 칼빈이 생각한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너무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들은 칼빈의 도덕적 가르침의 일부분으로 남게 되었다. 칼빈은 1536년 자신의 첫 번째 위대한 신학적 저술 「기독교강요」 집필을 통해 헬라 교부들과 라틴 교부들인 초기 교회의 교부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게 되었다. 바실리우스나 크리스스톰의 설교들, 또는 키프리야누스나 암브로시우스의 저술들은 칼빈의 목회 지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교부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칼빈으로 하여금 바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younsuklee@hotmail.com

이영숙 박사의 생품기유 여행



이영숙 박사 Good Tree Mission, California Grace University 총장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한 이유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절제는 나쁜 것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도 절제하지 않으면 자칫 집착이나 소유욕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지배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C. S. 루이스는 사랑이 상처를 동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사랑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랑을 우리가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 성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제 중 가장 어려운 일이며, 궁극적인 것이며, 최후의 시험이며, 다른 일을 가능케 하는 준비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배하려는 마음으로 작용합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이 지배하려는 욕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갈망의 사전적 의미는 '간절히 원함, 꼭 필요로 함, 진지하게 간청함, 열망'입니다. 무언인가를 갈망하면 그 대상에 몰두하게 되어 삶의 모든 것을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누군가의 헌신이나 맹세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확인해야만 하는 상태,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탓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지배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본성, 즉 자유를 갈망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결국 대립이 발생합니다. 지배하려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누가복음 17:33)는 말씀이 여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몰두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즐기면서 세상과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껏 표현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와 독특성을 지닌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1: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용납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없어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하기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goodtreeusa@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미신과 신앙

2017년에 중국 상하이 푸둥 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비행기 공항에서 80대의 한 승객이 비행기에 동전을 던졌다. 다른 승

객들이 다행히도 그것을 보고 신고했다. 항공사 직원들은 엔진을 점검했고, 놀랍게도 엔진에서 동전이 9개나 발견되었다. 이로 인하여 비행기는 5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승객들은 다시 한번 보안 점검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이 노인은 공항 당국에 의하여 즉시 체포되었다. 이 노인은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졌지만, 동전이 엔진에 들어가면 심각한 경우 비행 중 엔진이 멈추는 최악의 경우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한다. 안전을 기원하는 행위가 도리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동전을 던지는 것이 행운과 번영을

준다고 여겼다고 한다. 우물이나 연못에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말이다. 동전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띠고 있다고 믿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현대 사회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안전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의미로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지는 행위를 했던 것이고, 이런 사건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어릴 적 새 차를 산 옆집 주인아저씨가 타이어에 소금을 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왜 그러냐고 아버지께 물으니, 미신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소금이 자동차 타이어에 있는 액운을 떨쳐 내준다는 것이다. 그때 '소금이 그런 힘이 있다면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사는 길이었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신은 보이지 않는 힘이나 운명에 의하여 우리 삶이 좌우된다고 믿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액운을 떨쳐내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법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한다. 미신은 종종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비행기처럼, 자동차 운전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

황을 마주하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신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사 41:10) 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은 항상 존재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너무나도 많다.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두려움을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도록 이겨내기를 바라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wmclakim@gmail.com



다음세대 신앙계승을 위한 파트너십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다음세대 신앙계승을 위한 파트너십 세미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와 미주내 11개 교회 MOU

미주 대표 복음주의 한인신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최규남 총장, 이하 GMU)는 다음세대 신앙계승을 위한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이하 NCI)프로젝트를 위해 Lilly 재단으로부터 125만불의 연구 지원금 승인을 받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 내 다양한 한인 이민교회들과 협력하여 학술적 이면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세대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부모세대와 다음세대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세대통합 예배'라는 예배 모델을 제시하며 미주지역 한인교회들을 초청해 꾸준히 세미나

와 강연을 진행해왔다. 또한 지난 8월 12일 같은 비전을 가진 11개 교회를 선정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파트너십 세미나 및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최규남 총장의 지도로 시작된 파트너십 세미나에서는 19년간 달라스 나눈교회의 담임 안지영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해 '세대통합예배의 실천과제와 현실적인 고민'들을 참여자들과 함께 나누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GMU 안송주 학장은 '올바른 세대통합예배'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어린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교육적 의의에 대하여 강연과 실천적 가

이드를 제시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한 11개 교회들과 보다 현실적인 소통을 위한 그룹토의와 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MOU를 통해 GMU는 11개 교회에게 일정기간 재정지원과 세대통합예배와 다음세대에 대한 연구자료 공유, 예배를 위한 미디어파트 솔루션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GMU는 이번 MOU를 시작으로 11개 교회가 세대통합예배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 가운데 경험되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기독교 언론사와 한인교회에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이번 MOU에 참여한 11개 교회 명단이다. △생명의길교회(곽태규 목사), △세계등대교회(김도일 목사), △브릿지교회(김재호 목사), △어노인팅교회(남상권 목사), △라이트하우스앨버틴교회(왕상윤 목사), △갈릴리 은혜교회(이광세 목사), △주님의교회(최훈 목사), △생수의강선교회(최형규 목사), △갈보리사랑교회(허평강 목사), △나들목비전교회(권도근 목사), △아미쿠스장로교회(이신일 목사) 자세한 문의로는 (714)525-0088, admissions@gm.edu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아이들을 '진짜' 세상으로 데리고 나가라

(1면에서 계속)

가족과 함께 야외로 나가서 다양한 자연 식물을 탐험함으로써 우리는 식물, 동물, 기상 패턴, 그리고 이 땅의 지형 특징을 경험한다. 그리고 "나의 위치를 깨닫는"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데에 도움이 받는다.

왜 장소가 중요한가

크레이그 바르톨로뮤(Craig Bartholomew)는 고립되는 개인이라는 현실과 더불어 도시와 지역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보살핌이 사라짐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장소의 위기" 한 가운데에 처하게 되었다고 썼다. 장소라는 개념이 단지 지역적 특징과 지리적 좌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 장소에 포함된 일부일 뿐이다. 내가 속한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그 장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다음은 바솔로뮤의 지적이다.

예수회 시인 제라드 맨리 홉킨스(Gerard Manley Hopkins)는 웨일스의 구름과 계곡 사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는 세상에 관해서 썼다. 그는 또 다른 시에서 그리스도를 "만 개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분으로 묘사한다. 세상은 실제로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즐기라고 부르시는 곳은 바로 그 만 개의 장소 중 하나인,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다.

나 개인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자녀들을 위한 것이든, 자연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함께 즐기 위해서는 의도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조지 워싱턴 카버(George Washington Carver)는 이렇게 설명했다. "만물의 창조주이자 보존자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기쁨, 그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당신 집 마당에 있는 작은 사물을 연구하기 시작하라. 알려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탐구하라. 왜냐하면 새로운 진실 하나하나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주기 때문이다."

자연 탐험은 현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창조주와 그가 만드신 세상에 참여하는 방법은 셀 수도 없이 많다.

자녀들이 자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도록 도와라

우리 주변에는 어린 시절에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자연에서 누리는 놀라운 가치, 산책로 탐험, 새소리, 식물 식별 등등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받은 어른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인공 미미로 가득 찬 화면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긴 세대에게 자연이 주는 선물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감을 못잡고 있다.

좋은 소식은 자녀와 함께 밖으로 나가 자연에 심취하기 위해서 굳이 야생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 가족은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양질의 자료를 감사히 여긴다. 비록 세속 세계관으로 쓰인 책이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창조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맥락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와 활동을 담고 있다. Nature Anatomy(관련 저널, 활동책, 스티커북)와 Outdoor Activity Lab, Encyclopedia of Insects 같은 책은 개인의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를 위한 흥미로운 정보와 활동을 제공한다. Nature's Art Box, Watercolor in Nature, 그리고 The Lost Words는 요새 만들거나 볼 피우기 기술보다는 예술과 언어에 더 흥미를 느끼는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다. 물론, 간단한 그림판과 연필 또는 큰 돋보기만으로도 어린 탐험가에게는 충분한 촉매 역할이 된다.

우리는 특히 로빈 블랭큰쉽(Robin Blankenship)이 쓴 How to Play in the Woods가 제공하는 간단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좋아한다. 이 책은 "모든 연령대를 위한 활동, 생존 기술 및 게임"을 광고하는데, 이견 사실이다. 여러 연령대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특히 유용한 책이다. 최근 남편, 아들과 함께 산책할 때, "식물 섬유로 끈과 밧줄을 만들기" "무작위로 바

위를 깨서 날카로운 도구 얻기" 등등에 관한 이 책의 지침을 활용했다. 책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길가에 있는 키 큰 풀을 꼬아서 지나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드는 데에만 성공했다. 하지만 정말 아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건 바위 깨기 기술이었다.

책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기 위해 다른 바위에 던질 만큼 큰 바위를 찾기 위해 땅을 샅샅이 다들 가장 싫어하는 바위가 정작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바위였다. 우리는 바로 그런 바위를 만났고, 그 즉시 우리의 보물이 되었다. 흑색 돌은 원주민이 화살촉과 다른 날카로운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바위이다. 끊임없이 쪼개지는 특징을 가진 이 바위는 막대기에서 꺾질을 굽어내거나 동물 가죽을 닦을 만큼 날카로운 모서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질서와 설계의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증거이다. 바위를 찾아 뒤집고, 쪼개고 또 조사할 때마다 우리는 이 장소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새삼 확인한다. 미주리 남서부의 언덕, 그리고 바위라는 진정한 보물 창고 말이다.

창조주가 주신 장소

어떤 책을 참고하건 일단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 순간 우리는 자연 세계와 연결이라는 선물과 더불어 우리를 의도적으로 거기에 두신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시편 19편에서 설명하듯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그의 손으로 만든 일을 선포한다"(1절).

자연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축복이다. 동시에 점점 더 고립되고 설 자리를 잃어가는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라.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롬 1:20).

by Sara Osborne, TGC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 이순영 목사 취임 환영식에서 이 목사가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다

샌디에고 KUMC 이순영 담임목사 부임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제8대 목사로 이순영 목사가 부임했다. 지난 7월 부임한 이목사는 "예수중심과 선교중심교회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 신성한 여정에 참여 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순영 목사

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이민 와서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와이주립대학에서 ITM(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을 전공하

던 중 방글라데시에서 청년선교사로 1년간 섬겼다. 이후 예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 학위를 받고 주태평양연회로 돌아와 2007년부터 목회를 시작했다. 2015년에 정회원 목사로 안수 받고 2010년부터 7년간 하와이 파커연합감리교회 담임, 2017년 7월부터 캄보디아 대표선교사로 파송되어 12명의 현지 스템들과 함께 캄보디아감리교단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 왔다.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는 1978년 연합감리교회 샌디에고 지방 감리사 로버트 스미스 목사의 안내에 따라 7가정이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를 창립하기로 하고, 초대 담임목사로 파송받은 박진성 목사와 함께 창립예배를 드린 후 오늘에 이르렀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동부교계 게시판

## 퀸즈한인교회, 장례세미나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시니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8월 25일(주일) 오후 1시 사랑의 교실에서 중앙장사 하봉호 대표를 초청하여 장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박인섭 장로 917-561-3222

## 퀸즈장로교회, 킹스아카데미 한국학교 등록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9월 28일부터 5월 31일(2025)까지 28주간 킹스아카데미 한국학교를 연다. 등록은 8월 28일(금)까지이며, 대상은 PreK부터 고등학생이다.

▲ 문의: 전진영 전도사 267-476-2042

## 메시아 한국학교 2024년 가을학기 등록

위싱턴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는 9월 7일(토)부터 12월 14일(토)까지 가을학기 메시아 한국학교를 연다. 모집 대상은 4세부터 7학년이며 수업료는 200불(1인), 둘째 자녀부터 10% 할인혜택이 있다. 등록마감은 9월 7일까지이다.

▲ 문의: 교장 김중순 권사 703-473-9896, 교감 이민이 집사 703-798-0737

##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설립 20주년 기념 연례기도회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회장 손성대 장로)는 9월 7일(토) 오전 8시 디모스 연회장에서 설립 20주년 기념 연례기도회를 개최한다.

▲ 문의: 917-841-7558, 201-960-4447

## 베이스айд장로교회, 제2회 뉴욕 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

베이스айд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는 9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제2회 뉴욕 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718-229-0858

##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선교바자회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담임 한일철 목사)는 9월 14일(토) 본교회 드림센터에서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개최한다. 음식과 물품(옷, 가구, 가전제품, 약제사리) 등을 판매한 수익금은 KAPC 총회 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 문의: 336-841-8439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RPTSE)와 글로벌리폼스신학교(GRS) MOU 체결

## 상담학 신학석사(T.M.M) 공동학위 인정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와 글로벌리폼스신학교(Dr. Allen D. Curry)는 더 좋은 주의 일꾼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상담학 TH.M 과정 MOU를 체결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와 글로벌리폼스신학교는 8월 15일(목) 오전 11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실에서 상담학 신학석사(T.H.M) 학위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MOU에 서명했다. 이를 위해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정기태 목사, 이사 박정봉 장로, 김신정 행정실장이 참여했고 GRS에서는 알렌 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RPTSE)와 글로벌리폼스신학교(GRS) MOU 체결 사진 촬영 했다

리 명예총장과 원장 김은수 목사가 참석했다. 또한 동부개혁

장로회신학교 교수이며 GRS 운영 이사장인 이윤석 목사도 함께했다.

이에 따라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RPTSE)에서 5과목, 글로벌리폼스신학교(GRS)에서 5과목을 이수하면 각 학교의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또한 GRS에서는 학비의 50%를 장학금으로 제공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GRS는 조지아 주정부부(GNPE)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목회자, 선교사, 교사 등을 훈련하여 교회 재활성화와 선교를 주도할 글로벌 지도자를 양성하고, 탁월한 학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수진, 학생들의 '마음의 언어' 중심의 교육, 멘토링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성경적 신앙과 바른 신학으로 무장된 리더들을 배출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학교이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목사는 "양교는 같은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세워진 신학교로서 이번 MOU를 통해 함께 더 발전할 것을 확신하며 두 학교가 함께 기도하며 학문적 진전에 힘을 쓴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될 것이며 글로벌리폼스신학교(GRS)의 발전을 위해 기도한다"고 학감 정기태 목사가 대독했다.

명예총장 알렌 커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바울은 몸의 모든 기능이 부분 기능을 수행하는데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두 신학교는 상담 분야에서 고급 학문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단독으로도 가능했지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연합의 힘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GRS 원장 김은수 목사는 "두 신학교의 공통점은 개혁주의 신학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에 바탕을 둔 교육이 교회와 성도를 살릴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주님의 일꾼들을 성실하게 양성하며, 이 협력에 상담학뿐만 아니라 교회 재활성화와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학위에 대한 문의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718-463-7163 또는 학감 정기태 목사 917-733-7387로 연락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 노숙인 섬김공동체 사랑의 집 후원 음악회

##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돕는 섬김 공동체"

노숙인 섬김공동체 사랑의 집(이사장 원혜경)은 8월 17일(토) 오후 5시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시무)에서 노숙인 섬김공동체 사랑의 집 후원 음악회를 개최했다.

사랑의 집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한인 노숙자 돌봄 사역을 하며, 중독과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빛을 전하고 있다. 또한 아침이슬과 같은 후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자라나고 있다. 매달 \$25의 아침이슬 후원은 사랑의 집 운영에 큰 힘이 되며, 일상 속에서 생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원혜경 이사장은 "사랑의 집은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통해 지친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돕고 있다. 현재 내부 재정비와 비전 준비 중이며, 숙소 확장과 자립 프로그램을 위하여 후원자들의 기도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규복 장로의 사회로 시작한 1부 예배는 기도 김필자 목사, 설교 이태진 목사(복음과영성교회), 축도 김영식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태진 목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7-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진 후원음악회는 김루디 오보에 연주, 바리톤 강주원, 메조소프라노 글로리아 박, 테

너 윤길웅이 출연했다. 이날은 무엇보다 박종호 장로의 간증으로 후원음악회는 감동으로 이어졌다. 박종호 장로는 "125kg 까지 체중이 늘었지만, 당뇨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다. 55세에 무릎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암이 발견되었다. 간암은 말기 상태였고, 수술 대신 간 이식을 받아야 했다. 두 딸이 이식을 위해 나섰지만, 막내딸의 간이 커서 한 사람의 간으로 이식을 성공했다. 다"고 말했다. 그는 "간 이식 후 무균실에서 딸의 간을 받고 울면서 수없이 불렀던 찬양 '얼마나 아픈사람'을 불렀다"라며 그때를 회상했다. 또한 그는 "대학 4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복음사가 가수로 37년을 살았다. 2000년에 오페라 공부를 위해 다시 미국에 왔지만,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 이후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삶을 살고있다"고 말했다. 이 간증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

마지막으로 박종호 장로는 "2024년은 다사다난했지만, 내년에는 하나님 때문에 대박 나길 바란다"고 전하며 사랑의 집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축복하노라'를 찬양하며 마쳤다.

노숙인 섬김 공동체 사랑의 집 후원문의는 전모세 718-216-9063, 김혜선 917-902-6585로 문의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뉴욕교협, 할렐루아 뉴욕복음화대회 3차 준비기도회 후 사진 촬영 했다

# 뉴욕교협, 할렐루아 뉴욕복음화대회 3차 준비기도회

## 8월 23일(금)-25일(주일), 강사 김홍양 목사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는 8월 16일(금) 오전 10시30분 뉴욕선한목자교회(박준열 목사 시무)에서 할렐루아 뉴욕복음화대회 제 3차 준비기도회를 개최했다.

회장 박태규 목사는 "50주년 회년을 맞이하여 교계의 잘못된 관행과 습관들이 드러났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영적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강사 목사님을 통해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 믿으며, 교회들이 최근의 사건들을 계기로 교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할렐루아대회에 한 교회라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하며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할렐루아대회는 제주도에서 강사 목사님과 함께 31명이 참석하고, 어린이 찬양단이 어린 예배에 특별 찬양을 하며 어린이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유승례 목사(총무)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기도 박준열 목사(원주민선교분과위원장), 성경봉독 이조연 권사(이사장), 설교 임영진 목사(희년총괄위원장), 특송 최종원 집사, 축도 이종명 목사(증경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임영진 목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눅 10:21-4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임 목사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 이웃 사랑은 단순히 내가 선택한 그룹이나 범위 내에서만이 아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교협이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버려지고 비난받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교협을 사랑하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고, 교협이 다시 주님의 존귀와 위엄으로 단장되어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합심기도는 △2024 50주년 할렐루아 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해 김영철 목사 △교계의 영적 각성 위하여 김영환 목사 △차세대 및 할렐루아 어린이 복음화대회를 위하여 이승진 목사가 각각 인도했다.

임지훈 목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어린 할렐루아대회 주제를 발표한 후 성령충만, 말씀충만, 기도충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회장 박태규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노숙인 섬김공동체 사랑의 집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찬양하고 있다

### 피종진 목사 8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010-5255-7777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Godbless3377@gmail.com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th(D.D)

1(목) 오후 929특별기도대(1주~5주) 세종평화의동산 여름산성축복대성회를 위한 특별기도회 (강사 부원장 이성자 사모)  
 2(금) 오전 사랑발 TV(이사장 권태일 목사) Interview Recording  
 3(토) 오전 서울 열린교회(최선태 목사) 010-3298-8023  
 5(월) 오후 NYSKC 한국광주성회 주최 : NYSKC World Mission 총재 피종진 목사(한국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뉴욕), 사무총장 김은목 목사(LA)  
 5(월)~7(수) 천안 성화산기도원(원장 노베드로 목사) 010-8234-0690  
 8(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 여름산성축복대성회(원장 피종진 목사)  
 9(금)오후,저녁 고양시 한빛교회(김선일 목사) 010-4737-0691  
 12(월)~13(화) 대구 글로벌 강은숙 신유제단(원장 강은숙 목사)  
 14(수) 오후 신대방 국제문화예술포럼(대표회장 임영술 목사)  
 15(목) 오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주최 : 나라사랑기도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 010-2658-9006  
 15(목) 오전 서울 강남광문교회(황일 목사) 010-9260-1091  
 주최 : 지선현 광복절예배  
 15(목) 오후 송추 반석교회(고관은 목사) 010-2391-3004  
 16(금)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세계기독교교육신문방송TV)  
 16(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랑 목사) 010-8331-3431, 010-5603-4997  
 18(주) 오후 서울 사랑발 7천기도클럽(이사장 권태일 목사) TV Interview Recording  
 19(월) 오전 서울 사랑발선교회(권태일 목사) 010-5901-1277  
 19(월) 오후 한국기독교여성총연합회(대표총재 권영자 목사) 010-5603-4997  
 19(월)~20(화)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254-0691  
 21(수) 낮 저녁 영덕 등대교회(이사라 목사) 010-2531-1564  
 주최 : 글로벌 부흥사회(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의정부 호림산기도원(원장 박호식 목사, 총무 조광일 목사) 010-3129-1114  
 24(토) 오후 노산훈련소 3천명 진중세례교 주최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원선교회(류성교 정로) 010-5265-1501  
 25(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26(월)~30(금) Visiting International Mission Fields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kc.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07번길 30 Fax. 02)401-7770

## 사람을 찾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소식을 알 수 없는 아들을 찾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많이 위독합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식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 이름 : 심 종철  
 외국 이름 : Antonio 심  
 나이 : 1975년 생

연락처: 작은 아버지  
 (213)905-3874 / (818)454-8332  
 Yongsok45@gmail.com



###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새벽기도회 성료

“이곳에서 뿌려진 기도의 불씨, 대각성의 불씨가 되길”

제3차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가 성료됐다.

지난 7월22일부터 8월14일 까지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그리스도인이여! 탄식하여 울어라(겔 9:4)'라는 주제로 열린 새벽기도회는 △강서기 목사(행복한교회), △강은덕 목사(늘새론교회), △권도근 목사(나들목비전교회), △김도일 목사(세계등대교회), △김상욱 목사(미주세한교회), △김영호 목사(LA소망선교교회), △김정호 목사(가스펠교회), △류진욱 목사(남가주은혜로운교회), △박종순 목사(제자들교회), △박헌준 목사(팀쳐지), △배승언 목사(새로운교회), △송진엽 목사(베다니교회), △양홍규 목사(굿프렌즈교회), △유요셉 목사, △이명환 목사(시온중앙장로교회), △이정호 목사(소명교회), △임상훈 목사(섬김의교회), △장성원 목사(남가주성결교회), △조성우 목사(플러튼영락교회), △황다

니엘 목사(알파와오메가교회) 등 21명의 목회자들이 매일 새벽을 깨웠다. OC교협 회장인 심상은 목사는 “21일간 주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을 기도로 깨웠으며 선포된 말씀은 은혜 그 자체였다”며 “이제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게 된다. 이곳에서 뿌려진 기도의 불씨가 각 지역으로 흩어져 대각성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은 목사의 사회와 이원석 목사(OC목사회장)의 찬양인도로 14일(수) 오전 5시 30분에 시작된 마지막 날 새벽기도회는 김영수 장로(OC장로협의회)가 대표기도했으며 OC장로협의회 중창단이 특별찬양했다. 이어 임상훈 목사(섬김의교회)가 '구원의 심판(요 3:16-2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심상은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민경엽 목사(OC교협이사장)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3차 3050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제3차 3050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

“교회마다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제3차 3050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가 '그리스도인이여! 탄식하여 울어라(겔 9:4)'라는 주제로 15일(목) 오전 9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2층 친교실에서 열렸다. OC교협, OC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장로협의회, OC전도회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는 이원석 목사(OC목사회 회장)가 찬양인도 및 기도, 한기홍 목사(OC교협 증경회장)가 환영사를 했으며, 4개의 강의가 진행됐다. 제1강 "소망이 넘치는 목회"(롬 5:3-6)는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제2강 "디아스포라 선교와 선교적 교회"는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담임)가 강의했으며 심상은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오후에는 제3강 "AI & Digital 봉착한 위기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목회를 할 것인가? 여행하는 목회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남대니 목사가 강의하고 마지막 제4강 "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우십시오"(행 1:12-26)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한기홍 목사에 의해서 인도했으며, 심상은 목사의 폐회기도로 3050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를 마쳤다.

한편 대회장 한기홍 목사는 환영사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후에도 우리의 목회 현장에 아직까지도 현장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불경기와 함께 교회들이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목회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접할 수 있는 목회자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또한 한 목사는 "오늘날 우

리가 봉착한 위기를 풀 해법은 다시 하나님과 성경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목회적 지혜와 영감을 얻고 은혜와 새 영을 받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심상은 목사 OC교협 회장(갈보리선교교회)도 환영사에서 "제3차 3050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 영적 대각성, 21일 특별새벽예배가 어제 새벽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1차와 2차에 이어서 이번 3차 영적 대각성 기도는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하늘 문을 열고 부여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 차다"고 말했다. 심 목사는 또 "무엇보다 1차, 2차, 3차의 기도를 통해 만나게 된 63명의 보석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충만'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견뎌내고,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목사님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어느 가르침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강의 내용을 잘 배우고 잘 살려서 교회마다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라크마와 함께하는 우정과 화합의 콘서트 성황

라크마(단장 최승호 박사, 뮤직디렉터 윤임상 목사)가 주최한 라크마와 함께하는 우정과 화합의 콘서트가 18일(주일) 오후 7시 월드디즈니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최승호 단장은 "지난 12년 동안 라크마가 콘서트를 주최하여 개최해왔는데 이번 콘서트는 매우 특별하다. 그것은 평화를 향한 열망의 진정성과 절박함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콘서트는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콘서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그리고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음악을 통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의 1부는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음악인들이 인류에 대한 평화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공연했다. 테너 오우영이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의 서곡의 피날레 'Cujus animam'을 불렀으며 바이올리니스트 마크 케쉬퍼가 '윈들러리스트'를 연주했다. 그리고 소프라노 나탈리 부이클란스가 에드워드 호사리언의 '미리엄'을 불렀으며 라크마코랄이 Lorna Katz의 '평화'와 백낙금 작곡가의 '강강술래'를 불렀다. 2부 순서는 브람스의 레퀴엠 Op.45를 윤임상 마에스트로의 지휘에 맞춰 16개 다민족으로 구성된 75명의 라크마 코랄과 65명의 라크마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감동적인 공연을 펼쳤다. 곡중 소프라노 신선미와 바리톤 로드 길프리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더 큰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이날 콘서트를 관람한 이상기 평강교회 원로목사는 "여러 레퀴엠 공연을 관람했었는데 이번 브람스의 레퀴엠 콘서트는 예배를 드린 것 같았고 콘서트 내내 은혜를 받는 느낌이었어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라크마와 함께하는 우정과 화합의 콘서트에서 공연이 마친후 연출자들이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서부교계 게시판

#### 베델교회 2024 하반기 셀부흥회

베델교회(김한요 목사)에서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2024 하반기 셀부흥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강민수 목사(일리노이주 노스브록 소재 레이크뷰연합교회)이다. 셀부흥회 일정 23일(금) 저녁 7시30분, 24일(토) 아침 6시, 저녁 7시, 25일(일) 1-3부 예배

▲ 문의: (310)995-3936, (323)578-7933

KAPC 개혁장로회대학 2024 학년도 가을학기 학생 모집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총장 이정현 박사)에서는 2024 학년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신학사(B.Th), 기독교교육학 석사(M.C.E), 목회학석사(M.Div), 편입생과정, 편목과정, 목회학박사(D.Min), 신학석사(Th.D) 등이다.

▲ 문의: (310)749-0577, (626)675-8010

#### 이용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을 보내드립니다

LA동부장로교회를 개척하고 43년간 시무한 고 이용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을 무료로 배포한다. 성경강해 설교집은 1권부터 42권까지이며 설교집 책을 받아보기 원하는 개인, 교회, 학교, 도서관 등 미국과 한국의 어느 곳에든지 무료로 우송한다.

▲ 문의: (212)505-7831

#### 꿈꾸는교회 이진감사예배

꿈꾸는교회(담임 송희진 목사) 이진감사예배가 25일(주일) 오후 3시에 갖는다. 교회 주소는 119 S. Atlantic Blvd, #307, Monterey Park, CA 91754이다.

▲ 문의: (213)910-1212, (818)497-1964

#### 고신재미총회 제40회 총회 기념 역사 세미나

고신재미총회(회장 정인석 목사)는 제40회 총회기념 역사 세미나를 줌으로 25일(일)부터 9월 8일(일)까지 매주 일 오후 5시부터 6시20분(서부시간)에 개최된다. 일정과 강사는 △25일(주일) 나삼진 목사(에반겔리아대 교수): 오직 은혜로 걸어온 재미총회 역사 40년, △9월 1일(주일)

박재영 목사(1, 10회 총회장): 재미총회 40년 회고: 행정과 교육 분야, 김만우 목사(4, 12회 총회장): 재미총회 40년 회고: 선교와 SFC 분야, △9월 8일(주일) 박석현 목사(제34회 총회장, 선교위원장): 재미총회의 현재와 미래, 강담회: 나삼진 목사(사회), 정인석 목사(총회장), 이응도 목사(부총회장), 윤대식 목사(전임총회장), 박재철 목사(교육위원장), 곽한영 목사(SFC대표 간사)이다.

▲ 문의: 박재철 목사 (713)446-5718

#### CMF선교원, 124기 결혼교실 개최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이 주최하는 제124기 CMF 결혼교실이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5주 동안 매주 주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개최된다. 회비는 100달러(교재 및 저녁 식사 제공)이다. 결혼교실은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올바른 배우자 선택과 행복한 결혼생활로 안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CMF선교원이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이다.

▲ 문의: (714)733-3566(김제인)



박영선 변호사가 간증하고 있다

### 복음루터교회 박영선 변호사 간증집회 열어

복음루터교회(담임 김병곤 목사)는 전 부에나팍 시장인 박영선 변호사 간증집회를 14일(수) 오후 5시에 열었다. 김병곤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간증집회에서 박영선 변호사는 자신의 인생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놓으며 "어린 시절 불교와 무속신앙이 혼합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학교에서는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우등생이었고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26살때 미국에 와서 로스쿨을 다녔

며 유산상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부에나팍 시의원과 부시장, 그리고 시장직을 수행했는데 원치 않은 악플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시절 악플을 받게 되었더라면 정치인이 되는 길을 중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악플을 통해 받게 된 상처를 극복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영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기도 한다"라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려면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러한 도전들을 능히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청중들이 박영선 변호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김병곤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3차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합심기도하고 있다



비와이가 공연하고 있다

### 러빙워십 비와이 콘서트 성황

“예수님의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이 주최한 비와이 콘서트가 '무브먼트 IX'라는 주제로 17일(토) 오후 7시 노보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부터 노보극장 입구에 관객들이 모여들었다. 이번 공연을 후원한 LA온누리교회, 나성영락교회, 총현선교회, 남가주새누리교회, 베델교회, 동부사랑의교회, 새생명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 등에서 청년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과 장로, 권사 등 생후 8개월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으며 주최측 추산으로 1,550여명의 관객들이 이날 콘서트에 참여했다.

조셉 리 목사는 "러빙워십과 비와이의 콘서트는 '무브먼트 IX'라는 주제는 예수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콘서트를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기를 바란다. 인생의 모든 길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와이는 "LA에서 공연을 4번째 했는데 이번 공연에 참석한 관객수가 가장 많았으며 쇼미더머니를 마치고 했던 공연보다 더

많이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가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 같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내 노래는 교회가 아닌 세상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곡이다. 그러나 내 노래말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다. 그 이유는 내 노래가 교회에서도 들려지고 클럽에서도 들려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비와이는 "콘서트 무대에 설 때 내 공연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내 팬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여기모인 여러분들은 비와이의 팬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팬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예수님의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비와이는 '인천공향', '가라사대', '홀리 고스트 커밍 업', '홀리 토스트', '떠 버릴래' 등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 “하나님은 B급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 주신다”

포도원교회, 농어촌 미자립교회 초청 2박3일간 청년하기수련회

역대급 폭염도 청년들의 영적 갈망을 막지 못했다. 포도원교회는 지난 15일부터 2박3일간 농어촌미자립교회 초청 청년하기수련회를 열어 전국에서 모여든 5500여 명의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줬다. 첫날 접수를 마치고 방 배정을 받은 청년들은 여는 예배를 드렸다. 청년사역 전문가인 정다윗 선교사가 ‘새 옷으로 갈아입자’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고신대 소진희 교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둘째 날 집회는 번개탄TV의 임우현 목사가 ‘은혜 시리즈’란 주제로, 황정은 오메가교회 목사는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이란 주제로 특강

과 말씀을 이어갔다. 수련회에 참석한 청년과 대학생들은 44개 소그룹으로 나눠 교회가 준비한 프로그램에서 ‘나에게 말씀, 기도, 찬양, 섬김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질문리스트를 만들어 질문과 대답을 듣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 쇼핑물 등 이색적인 체험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기쁨을 누렸다. 팀빌딩 활동으로 친밀감이 형성돼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집회 마지막 날엔 강은도 더푸른교회 목사가 ‘진정한 찬양’(함 3:16~19)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강 목사는 “사람이 힘든 역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주일에 웃고 있

다가 월요일이면 좌절감과 상실감이 찾아온다. 우리는 허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즐거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단에 오른 김문훈 포도원교회 목사는 ‘나여 내가 나를’(사 6:8)이란 주제로 파송예배를 인도하며 성령의 말씀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참석자들과 비슷한 시절인 ‘청년 김문훈’이 겪은 간증을 밝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 그리고 웃음을 선사했다. 그는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 시켜주신다. 아깝처럼 써먹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면서 “하나님은 B급 인생을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기서 새끼이슬 같은 리더자가 나온다. 여러분의 꿈이 디자인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쓰임 받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수련회에서 얻은 신앙적 깨달음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나누며 향후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포도원교회는 이번 수련회 등록비를 전액 환급해줬다. 또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목사는 “포도원교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와 교회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일에배 준비, 청소년 심방, 권사 셀 모임...

전도사 유튜브, 사역의 일상 다뤄처럼 짝다

한국교회 안에 부교역자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교회 사역의 현실과 보람을 알려주는 유튜브 프로그램 ‘사역역자’가 눈길을 끌고 있다.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나선길(20)의정부동행교회 전도사가 직접 경험한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 더욱 사실적이다. 나 전도사는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영상이 결단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나 전도사는 지난해 개인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STUDEO)’에서 교회탐방 브이로그(영상 일기) ‘교회록’을 진행했다. ‘스

튜데오’는 영상을 제작하는 공간인 ‘스튜디오(Studio)’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라틴어 ‘데오(Deo)’의 결합어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영상을 만든다’는 의미다. ‘교회록’에서 그는 직접 23곳의 교회를 방문 해 새신자와 가나안 성도를 위한 교회를 소개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다 지난 5월 의정부동행교회(박준우 목사)에서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내 젊은 사역자 부족 문제를 다룬 ‘부교역자 기피 현상’ 영상을 짚었다고 한다. 그는 “많은 사역자가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사역을 포기한다는 현실을 알게 된 후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으로 ‘사역서’를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역서’는 단순한 교회활동 기록을 넘어 사역자가 목회와 신앙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끌어 가는지를 다루는 콘텐츠다. 현재까지 공개된 5편의 영상은 주일예배 준비, 청소년 심방 및 교제, 주일 식사 당번, 권사 셀 모임 참석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교회 내 섬김과 사역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다.

나 전도사는 청소년부 학생과 함께한 2편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2편에서 그는 청소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학원에서 수업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함께 식사하며 여가를 보내는 등 학생과의 일상을 공유했다. 주일에는 학생이 성도들과 직접 만나 신앙 상담을 진행하는 캠페인도 펼쳤다. ‘사역서’의 주 시청 대상은 사역자들이지만 나 전도사는 교회 성도들의 헌신도 영상에 자연스럽게 담으면서 일반 성도도 영상을 통해 섬김의 모범을 깨닫길 바라고 있다. 그는 “사역자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간 깊은 유대감을 확인하며 교회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했다”며 “앞으로도 영상에서 다양한 사역에 도전해 사역자의 소명의식과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이 함께하는 과정을 담겠다”고 다짐했다.



### 해충방제 작업, 여름나기 물품 지원...

굿피플의 여름 사역

지난 5일 시각장애인 김현철(가명·90)씨가 사는 대구의 한 여인숙에서는 방제 작업이 진행됐다. 작업에 참여한 이들은 바퀴벌레 살충제를 뿌리고 쥐가 다니는 길목엔 쥐약을 놓았으며 다양한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소독 작업도 실시했다. 김씨는 “양쪽 눈이 모두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 벌레가 돌아다니거나 심지어 배 위로 기어다녀도 잠을 방해가 없었는데 이

제 벌레가 없어져서 좋다”고 전했다. 당시 이 작업을 진행한 곳은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피플(회장 김천수)과 종합환경위생기업을 표방하는 세스코였다. 19일 굿피플에 따르면 굿피플과 세스코는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대구·경북 지역 시각장애인 10개 가정을 상대로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굿피플은 “대구광역시시각장애

인복지관을 통해 해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들의 상황을 접하고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5월까지 계속된다. 김천수 굿피플 회장은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굿피플의 ‘여름 사역’은 대구에서만 진행 중인 게 아니다. 굿피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오경복)는 최근 전남 광양 독거노인 가구에 총 1000만원 상당의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했다. 광양 진상면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독거노인 52명에게 선풍기 제습기 등을 전달한 것이다. 진상면은 광양에서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은 곳으로 평균 연령이 62세가 넘는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30%를 웃돈다.

오경복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은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로의 성장과 회복 향한 여정”

NGO 희망천구 기아대책 캄보디아서 ‘마이리얼비전트립’ 전개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해외문화 체험 프로그램 ‘마이리얼비전트립’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리얼비전트립’은 보호

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해외문화 체험과 현지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시즌으로

진행했다. 이번 트립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5박 6일 간 진행했으며, 마이리얼비전트립 2기 단원들은 캄보디아 사업장인 유치원 및 고등학교를 찾아 양 국가의 전통놀이 및 시장 체험과 그림대회, 급식 배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캄보디아의 유네스코 문화 유산인 앙코르와트 및 수상마을을 방문해 문화활동 체험도 가졌다.

장소영 희망천구 기아대책 국내사업본부장은 “해외 현장의 특별한 경험이 더 큰 세상과 가치에 대한 시야를 갖추고 더 멋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교봉 태풍 피해 필리핀 구호 활동 시작

현지 방문해 쌀 1000포대 전달하며 위로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대표단장 김태영 목사)이 태풍 개미로 피해를 당한 필리핀을 구호 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한교봉은 지난 15일까지 3일간 필리핀 몬탈반 디아코니아 선교센터(박정규 코디네이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피해 난민을 위한 사랑의 쌀 1000포대를 전달했다.

필리핀은 지난달 발생한 태풍 개미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으며 이로 인해 13명이 숨지고 이재민 60만명이 발생했다. 김철훈 한교봉 사무총장은 “현지 선교사님의 보고에 따르면 새벽에 폭우가 내려 피해가 컸다고 한다”며 “그동안 수많은

은 태풍이 지나갔지만 이번 태풍에 대한 현지인들의 두려움은 더 큰 상태”라고 전했다.

한교봉은 계속해서 필리핀 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구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한교봉이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교봉은 지난 6일 일본 노토반도 지진피해 복구에 참여한 일본 릿쿄대 기독교동아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양국 크리스천 리더들의 양성을 위한 일에도 나섰다.

### 공공성 마주한 한국교회,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미혼모 시설 기쁨의 하우스로 보는 공공신학

20대 미혼모 김사랑(가명)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 미혼모자 시설 ‘기쁨의 하우스’를 찾았다. 출산일이 가까워졌을 때에야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아이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중책을 감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이 입양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등 도움을 받기 위해 시설에 입소했다. 미혼모자 시설은 미혼모 여성과 신생아가 지낼 수 있는 시설이다.

김씨는 그러나 시설에서 8개월을 지내며 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다. 양육교육을 받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극적인 순간은 이어졌다. 김씨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다. 두 사람은 아이 양육을 함께 하며 각별해졌고 지난 4월 김씨는

아이 아버지와 가정을 꾸렸다. 박윤성 기쁨의교회 목사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영복교회(여현규 목사)에서 진행한 기독교통일학회 학술대회에서 기



쁨의 하우스 김씨 사례를 소개했다. 기쁨의 하우스는 전북 익산 기쁨의교회와 여성가족부 및 익산시가 주관해 설립한 한

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시설이다. 기쁨의교회는 이 시설을 찾는 미혼모의 출산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시설 완공된 이후 4년 동안 40여

명의 아이가 이곳에서 태어났다. 박 목사는 “미혼모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다. 산모가 어리다 보니 낙태

하거나 신생아를 베이비박스 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혼모 시설 운영에 관한 관심이 꾸준하지 않다는 점이다. 박 목사는 “전국에 200여개 있던 미혼모자 시설은 현재 60개뿐”이라며 “교회가 사회적 공공성에 관심을 두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기쁨의교회가 미혼모 사역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기부 등 활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교회에서 무엇보다 공공성과 공공신학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공신학은 교회가 사회 속에서 가져야 할 공공성에 대한 신학적 연구다. 최현범 총신대 신학과 교수는 이날 기조 발제에서 “공공성에 관심이 적던 기독교는 박해에서 벗어나 종교의 자유를 얻은 313년 밀라노 칙령을 계기로 사회적 공적 가치를 고민하게 됐다”며 “역사를 보면 사회 구성원 다수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교회는 자유 인권 평등 환경 등 사회적 책무를 함께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61)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 제10차 KWMC 대회를 돌아보며 (3)

선교동원트랙은 '선교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명제를 가지고 트랙을 준비하였다. 코디네이터로 섬긴 김장생 선교사는 선교동원의 로드맵으로 현지인 선교동원의 사례를 발표하고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100%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장인 지용근 소장은 한국 선교동원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강의하고, 이해란 선교사는 청년 선교동원을 위한 발전적 제안을 하였다. 선교한국 사무총장인 최용선 선교사는 세대별 질문의 변화와 선교동원에 대한 발표를 하였으며, 한국 청년 선교동원 사례를 거쳐 고령교회의 박정곤 목사가 발표하였다. 박정곤 목사는 그동안 선교동원 사업을 통해 개인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김기섭 목사는 프로젝트 예즈 마이아 사례를 들어 미주의 지역교회에서 청소년을 선교동원한 유용한 사례를 발표하고 류재중 선교사와 배선호 선교사는 카이로스 훈련프로그램과 컨넥션 스킴을 통한 교회 선교교육을 발표하였다. 오윤태 목사는 미주한인디아스포라 2세 사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선교동원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선교동원트랙에서는 "우리는 한국교회가 선교의 비전과 역량을 갖춘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파송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사명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선교단체와 지역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다양한 선교훈련들을 접목하며, 단기 선교의 질적수준을 제고함을 통해 한국교회의 선교파송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하였다.

선교행정거버넌스 영역트랙은 선교단체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집중하였다. 한국 최초의 자선선교단체인 KIM 선교회의 후신 GP 선교회의 역사와 선교행정 발표를 통해 김동건 선교사는 거버넌스는 선교 단체의 세계관을 담는 그릇으로서 지난 56년간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례를 발표하였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거버넌스가 변화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음도 보게 하였다. 한국 국회의장 외교특임 대사 주유엔 차석대사를 지낸 한홍희 선교사는 TIM 선교행정을 통해 온누리교회라는 모달리티와 선교회인 TIM 소달리티 간의 32년간의 협력의 소개하였다. 한경선 선교사는 선교단체의 본부사역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GMS 선교행정을 맡은 전철영 선교사사무총장은 GMS 선교행정에 대해 나누고, HIS의 김중만본부장은 교단 파송 중심의 장교부와 초교파선교회 중심의 상담점들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교행정거버넌스 트랙에서는 "우리는 차세대 리더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선교 행정 표준(인사관리, 재정관리, 선교지 자산 관리 기준)및 거버넌스 마련과 이를 수행할 전문 선교행정가들을 양성하는데 함께 협력한다"고 결의하였다.

소그룹 운동에 대해 송병주 목사가 발표하였고, 도시 목회에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가는가에 대해 이정엽 목사가 선교적 교회와 다음 세대에 대해 이기훈 목사가 발표하였다. 이 트랙에서는 "우리는 21세기의 결핍과 위기가 당연한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에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 가치를 둔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으로 파송하는 교회로서 교회의 조직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지키는 삶을 지향하고자 한다. 가는 선교사뿐 아니라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성도들이 살아내고 지역교회와 선교지의 교회가 본질적인 선교적 교회 운동으로 다시 자리매김 하도록 많은 교회와 선교지를 적극 돕고 협력한다"고 결의하였다.

위기관리 영역트랙에서는 코디네이터로 섬긴 GMS 위기관리팀장인 김정환 선교사가 성경과 신학적 관점에서 본 위기의 본질에 대해 발표하였고, 중앙아시아, 중남미, 인도차이나 등의 지역사례들을 이길우, 김선근, 김보세 선교사들이 나누었고, 개인의 위기극복 사례 발표를 이해림 선교사가 MK로서 당한 위기극복의 사례를 이해림 MK가 나누었다. 위기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필요에 대해 왕부장 선교사가 발표하였으며, 지역 연구를 통한 위기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해 마민호 교수가 발표하고 선교사 위기 처분에 대한 강의를 데이비드 박 장로가 맡았다. 위기관리 트랙은 "위기의 세기에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처하며 지역연구와 정보 활용을 통해 위기를 뛰어넘는 전략적인 선교를 지향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렇게 생애주기를 통한 위기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판

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위기관리를 위한 전문단체의 조직과 긴밀한 네트워크의 필요가 절실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 K국에서 이\* 선교사와 그의 장모님이 총을 들고 침입한 납치범들에게 납치를 당하여 행방을 모르고 있으며, 사모와 3살짜리 아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나 집에 남겨두고 떠났다고 한다. 모두가 위기를 만날 수 있으나 선교사들은 그 위험수위가 그 만큼 더 높다. 특히 선교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단체들은 위기 관리 전문가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납치의 경우 특히 어려운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라도 풀려나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온교회는 그들의 안전귀환을 위하여 전적으로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전방개척 영역 트랙에서는 Frontier Ventures의 Greg Parsons 가 Mission Frontiers: Pressing Forward in God's Global Mission에 대해서 발표하고, David Bogosian은 마지막 남은 과업 완수의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필립 박사는 한국교회의 중국 선교와 선교 중국 전방에 대해 발표하고 윤파라 박사님은 타문화 동반자 사역을 통한 미전도지역 개척의 사례들을 통해 전방개척이 이루어짐을 강의하였다. 또한 히말라야 산맥의 동서로 선교촉진 전략을 세운 Trans Himalaya Mission의 사역에 대해 David Cho 박사, 곽아브라함 선교사, 유동행 박사, 정아브라함 박사가 발표하였다. 전방개척 영역 트랙에서는 더욱 세부적인 대상 설정과 교회, 선교사, 현지인들과의 적극적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방개척 선교를 위해 방언종족 선교의 필요를 인식하고 성령의 주도 아래 교회와 선교사와 현지인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강화한다"고 결의하였다.

현지교회 선교동원 트랙은 최근의 선교경향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이다. 이제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라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는 모든 지역과 권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강조이다. 상대적으로 기

독교 신앙이 강한 나라와 민족이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선교는 발전된 나라 교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와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난한 나라는 피선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곧 선교지에서 mission planting 전략이다. 현지교회의 선교동원 영역 코디네이터인 안성원 선교사는 현지선교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 파송운동의 사례들을 나누었다. 한도수 선교사의 브라질 현지 선교운동, 임도마 선교사의 베트남교회 현지 선교운동, 김해란 선교사의 21세기 브라질 선교의 재생산 모델 케이스를 나누었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에서는 두 가지 다른 양상으로 현지 선교회를 만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인선교사가 선교단체의 설립과 훈련 및 지원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독립적인 단체를 만들고, 인도네시아인이 선교회의 대표가 되어 운영을 한다. 그런데 다른 모델로 브라질의 경우는 한인단체의 브라질 본부를 만들고 브라질 목회자들이 이사로 들어와 함께 사역을 하지만 한인선교사가 단체의 대표를 맡아서 조금도 한인 단체와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통하여 현지교회 선교사 지원 발굴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트랙에서는 "한국 선교사의 Church Planting을 통해 세워진 선교지 교회들이 Mission Planting을 통해 세계선교에 함께 동참하도록 동원사역한다"고 결의하였다.

통일선교 영역 트랙에서는 공개와 비공개 토론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서 준비과정부터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 결국 공개될 수 있는 범위의 트랙이 진행되었고, 코디네이터로 섬긴 서예레미야 선교사의 미주에서 할 수 있는 북한선교 발표와 통일브레드로서의 조선족에 대한 발표를 박성진 목사가, NK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세우는 학교의 현장 이야기가 배민수 목사로 부터 듣게 되었다. 또한 북한선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시적 성찰과 전망에 대해 오성훈 목사가 발표하였다. 미국에서 일어나

는 통일광장 기도와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해 이종인 선교사의 발표, 탈북민 교회의 성장과 동행 프로젝트를 정형진 목사가 구심적 북한 선교와 교회적 연합에 대해 이필립 선교사, 통일목회와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 이병철 목사가 분단 후 북핵교회의 새로운 이해에 대해 유관지 목사가 발표하였다. 많은 관심자들의 뜨거운 참여가 돋보인 통일선교 트랙은 "우리는 분단 이후 80년의 북핵교회와 한민족교회의 통일선교를 성찰하고 우리 시대를 분별하며 지 선교운동, 임도마 선교사의 베트남교회 현지 선교운동, 김해란 선교사의 21세기 브라질 선교의 재생산 모델 케이스를 나누었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에서는 두 가지 다른 양상으로 현지 선교회를 만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인선교사가 선교단체의 설립과 훈련 및 지원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독립적인 단체를 만들고, 인도네시아인이 선교회의 대표가 되어 운영을 한다. 그런데 다른 모델로 브라질의 경우는 한인단체의 브라질 본부를 만들고 브라질 목회자들이 이사로 들어와 함께 사역을 하지만 한인선교사가 단체의 대표를 맡아서 조금도 한인 단체와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통하여 현지교회 선교사 지원 발굴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트랙에서는 "한국 선교사의 Church Planting을 통해 세워진 선교지 교회들이 Mission Planting을 통해 세계선교에 함께 동참하도록 동원사역한다"고 결의하였다.

통일선교 영역 트랙에서는 공개와 비공개 토론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서 준비과정부터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 결국 공개될 수 있는 범위의 트랙이 진행되었고, 코디네이터로 섬긴 서예레미야 선교사의 미주에서 할 수 있는 북한선교 발표와 통일브레드로서의 조선족에 대한 발표를 박성진 목사가, NK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세우는 학교의 현장 이야기가 배민수 목사로 부터 듣게 되었다. 또한 북한선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시적 성찰과 전망에 대해 오성훈 목사가 발표하였다. 미국에서 일어나

는 통일광장 기도와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해 이종인 선교사의 발표, 탈북민 교회의 성장과 동행 프로젝트를 정형진 목사가 구심적 북한 선교와 교회적 연합에 대해 이필립 선교사, 통일목회와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 이병철 목사가 분단 후 북핵교회의 새로운 이해에 대해 유관지 목사가 발표하였다. 많은 관심자들의 뜨거운 참여가 돋보인 통일선교 트랙은 "우리는 분단 이후 80년의 북핵교회와 한민족교회의 통일선교를 성찰하고 우리 시대를 분별하며 지 선교운동, 임도마 선교사의 베트남교회 현지 선교운동, 김해란 선교사의 21세기 브라질 선교의 재생산 모델 케이스를 나누었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에서는 두 가지 다른 양상으로 현지 선교회를 만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인선교사가 선교단체의 설립과 훈련 및 지원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독립적인 단체를 만들고, 인도네시아인이 선교회의 대표가 되어 운영을 한다. 그런데 다른 모델로 브라질의 경우는 한인단체의 브라질 본부를 만들고 브라질 목회자들이 이사로 들어와 함께 사역을 하지만 한인선교사가 단체의 대표를 맡아서 조금도 한인 단체와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통하여 현지교회 선교사 지원 발굴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트랙에서는 "한국 선교사의 Church Planting을 통해 세워진 선교지 교회들이 Mission Planting을 통해 세계선교에 함께 동참하도록 동원사역한다"고 결의하였다.

통일선교 영역 트랙에서는 공개와 비공개 토론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서 준비과정부터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 결국 공개될 수 있는 범위의 트랙이 진행되었고, 코디네이터로 섬긴 서예레미야 선교사의 미주에서 할 수 있는 북한선교 발표와 통일브레드로서의 조선족에 대한 발표를 박성진 목사가, NK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세우는 학교의 현장 이야기가 배민수 목사로 부터 듣게 되었다. 또한 북한선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시적 성찰과 전망에 대해 오성훈 목사가 발표하였다. 미국에서 일어나

이처럼 이틀에 걸쳐 8시간 동안 전문영역의 트랙이 진행되면서 깊이있는 토의와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형성되고 확장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몇개의 전문영역들은 대회 후에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전문영역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dr.yongcho@gmail.com

### 전도자 C. S. 루이스(I)



강태광 목사  
(월드케어USA대표)

다면적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많은 영혼을 전도한 전도자였다. 휘튼 칼리지 총장을 지낸 필립 G. 라이켄(Philip G. Ryken) 박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잡지인 <크리스체리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가 창간 50주년을 기념하며 복음주의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서적 50권을 선정하여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 분야에 독보적인 C.S 루이스를 언급한다.

필립 라이켄 박사는 통상 유명세와 영향력은 다르기 마련인데, 루이스의 경우는 영향력과 유명세가 같다고 했다. 루이스의 영향력은 전도의 열매이다.

C.S.루이스는 회심한 직후부터 전도를 소원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대표작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 민

지 않는 이웃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봉사,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봉사는 모든 시대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으로 믿어 온 바를 설명하고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라고 밝힌다.

C. S. 루이스가 전도자에 충실했다는 것은 다양한 자료에서 발견된다. 그는 우선 몇 번에 걸쳐서 대중 전도 활동을 했다. 제2차 대전 초기에 영국 공군 부대들을 순회하며 강연을 통해 전도했다. 또 1941년부터 1944년까지 BBC 방송국에서 방송 강연을 했다. 기독교를 소개하는 강연이었고 이 기회를 통해 루이스는 당시 영국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루이스의 펜을 통한 전도 활동은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도르셋(Dorsett)은 C.S. 루이스는 문학적 전도자(Literary

evangelist)라고 주장했다. 루이스는 자신이 저작한 책들 대부분이 전도를 위한 책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는 루이스 자신은 기독교의 진리를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가라는 주장을 했다. 또 루이스는 <기독교와 문학(Christianity and Literature)>이라는 소논문에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한 영혼의 구원이 세상의 모든 문학작품의 발표와 관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며 전도의 가치를 강조했다.

C.S. 루이스의 오랜 친구요 개인 변호사였던 오웬 바필드(Owen Barfield)는 "루이스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굳게 믿었다"라고 전한다. 루이스는 <기독교와 문화(Christianity and Culture)>라는 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일이 영혼을 구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말했다.

C.S. 루이스의 개인전도 활동에 대하여는 상반된 견해가 공존한다. 루이스가 자신의 학생들에게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이 기독교 신자인 것을 알리지 않았

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C.S.루이스의 개인 지도를 받았던 존 웨인(John Wain)은 "루이스가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가 키플링에게 했던 말-젊은이 내가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발가락으로 탬버린을 치겠소-을 종종 인용하면서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많은 지성인을 루이스가 전도했다."라고 전한다.

루이스는 전도에 관한 자신의 열망과 전도의 방법론에 충실하게 쓴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밝힌다. 이 책의 출생 과정을 살펴보면 루이스의 이 말이 더욱 분명해진다. 루이스는 원래 책을 출판하려고 펜을 들지 <순전한 기독교>를 완성하지 않았다. 2차 대전 전쟁 중에 BBC 방송국 요청으로 진행한 방송 강연 원고를 바탕으로 완성된 책이다.

BBC 방송 강연은 원래 전쟁의 공포와 피로감으로 힘든 영국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전쟁 중에 라디오 방송으로 기독교 복음을 소개하며 소망과 위로를 시민에게 전하기 위해 준비된 강연이었다. 그러므로 강연의 목표는 신앙인에게는 확신을 강화하고 불신자에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였다. 방송 강연도 대성공이었고, 강연 원고를 다듬어 출판한 <순전한 기독교>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우리가 잘 아는 명사들이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중의 한 사람이 닉슨 전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다가 워터게이트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에 선고받았던 찰스 풀슨이다. 그는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회심하였다. 그는 출소 후 교도소선교회(Prison Ministry)를 만들어 전 세계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 헌신하였다.

나아가 미국의 계몽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프랜시스 폴린스 박사는 <신의 언어>에서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데 C.S. 루이스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현재 대표적인 복음주의 진영의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Os Guinness)박사도 루이스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다.

로드맨 프리들랜드(Rodman Fridland)가 1958년 당시 미국 장로교 선교사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를 소개했다.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선교사가 되는 데 가

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있었는데, 이 질문에 응답한 415명의 현장 선교사 중 50%가 'C. S. 루이스의 영향으로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는 루이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C.S. 루이스는 미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지만 수많은 미국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1986년 휘튼 대학교의 메리온 웨이드(Marion Wade) 센터에서 "당신, 혹은 당신이 아는 사람이 C. S. 루이스와 그의 책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했다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광고를 미국의 기독교 신문과 잡지에 게재했다.

이 광고를 본 미국과 전 세계에서 많은 "간증들이" 속속 도착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루이스가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들은 넘쳐났으며, 특히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렀다는 고백이 많았다. 또한, 신앙을 유지하고 지속하는데도 루이스가 큰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들도 많았다.

Kangtg1207@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환난 날의 기도 (시.142:1-7) 찬 93장

엔게디 굴에 피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난의 때에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첫째,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리 내어 절규하며 원통을 주께 토하며 우환을 그대로 진술하는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정을 주께 토하는 겸손한 기도가 응답됩니다. 둘째, 여호와와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원수가 얼굴을 숨기고 공격할 때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자 굴 앞에서 감사 기도한 다니엘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셋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고 의인이 자기를 호위하는 기이한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난관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원수에게서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다윗의 기도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 화 회복의 기도 (시 143:1-5) 찬 214장

징계로 환난에 떨어진 다윗은 구원의 회복을 구합니다. 그는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첫째, 주의 앞에 판단 받으려고 기도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성도가 죄를 범해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이 생리임을 보여줍니다. 당하는 환난이 죄의 결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의와 진실을 원합니다. 그 앞에 바로 서겠다는 마음이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과 그의 말씀

을 사모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사모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째, 주의 뜻을 행함을 간구함으로 회복 될 수 있었습니다. 10-11절에서 다윗은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소서", 라는 간구로 자기의 피난처는 오직 그분의 뜻 뿐임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주의 뜻 위에 세워야 합니다.

## 수 복된 사람 (시 144:1-15) 찬 28장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은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찬송하며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가정과 직장에 복이 임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해

야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원수를 파하고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능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찬송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이럴 때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목 나의 왕이신 하나님 (시 145:1-13) 찬 94장

본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행복을 그분의 통치 받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찬양할 왕은 누구신가요? 그는 광대하시며 능하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표현인 그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한 분을 잘 모시기 위해 총 집중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을 곳이 없는 것을 믿는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그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째, 어떻게 그를 찬양해야 하나요? 날마다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의 기사를 목상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는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요? 그 분과의 군신관계 주종관계가 된 백성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를 찬양하고 즐기는 자가 됩니다.

## 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시 146:1-10) 찬 197장

할렐루야 시편중 하나로 알려진 본문은 하나님만을 신뢰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에 의존하는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으며 들끓는 물이나 들끓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무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만이 의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영원히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주된 자에게 식물을 공급하시는 신실한 섭리주이시며, 객과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시고 악인 의 길을 굳게 하며 모든 일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보호자이시며, 갇힌 자를 해방하시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오직 그 분만을 신뢰하십시오.

## 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유 (시 145:14-21) 찬 208장

본문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 주기를 구원하는 분, 풍성한 분, 의로우시고 은혜로운 분,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신자는 그분을 앙망할 수 있는가요? 첫째, 의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앙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로 총만한 그분을 생각하고 그를 묵상하고 그를 표준으로 삼을 때 진정한 기쁨을 체험합니다. 의의 태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위

해 사는 것이 의미입니다. 둘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앙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소원을 다 채워주시는 구원과 보호와 은혜의 주권자이십니다. 무슨 일든 주 안에서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셋째, 진실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앙망할 수 있습니다. 그 분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기독교 교육 (53)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 안식일과 주일 (2)

“율법은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기간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돌에 새겨진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더 높은 차원, 고차원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고차원의 율법을 몇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21-22,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RACA, 무가치한 사람--쓰레기)’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5:27-28,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5:38-44,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5:43-44,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돌판에 새긴 율법을 억지로 지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은 마음판에 새긴 고차원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죄와 벌로부터 구원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차원의 율법을 지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오늘날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마 12:8)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안식 후 첫 날을 지킵니다. 그날을 주의 날, 즉 주일로 삼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마 28:1; 막 16:1; 요 20:1),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고(행 2:1-4), 초대교회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 날입니다(행 20:7; 고전 16:2).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만큼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 사람이 사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이와 같은 안식일의 정신을 하나씩 상고해보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였습니다.

안식일은 11절에 있는대로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날입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28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근비하지 않으시다.” 또 시편 121:4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나 쉬는 본을 보이기 위해 쉬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 20:10절에 있는대로,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족이나 손님도 모두 쉬는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꿨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쉬게 될 그날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일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일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별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전부터 일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일이고, 에덴동산을 돌보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안식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일은 복입니다.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일을 통해 자기성취를 이룹니다. 만족감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입는 옷, 먹는 음식,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 등등,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을 통해 얻습니다. 즉,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벼는 것보다 많이 쓰면 파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쉬지 않으면 탈진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주일에 쉬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9은 “그러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영원한 안식을 가리킵니다. 주일을 맞으면서 크리스천은 이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안식일의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며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정신 두번째와 세번째는 다음번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JONK@DB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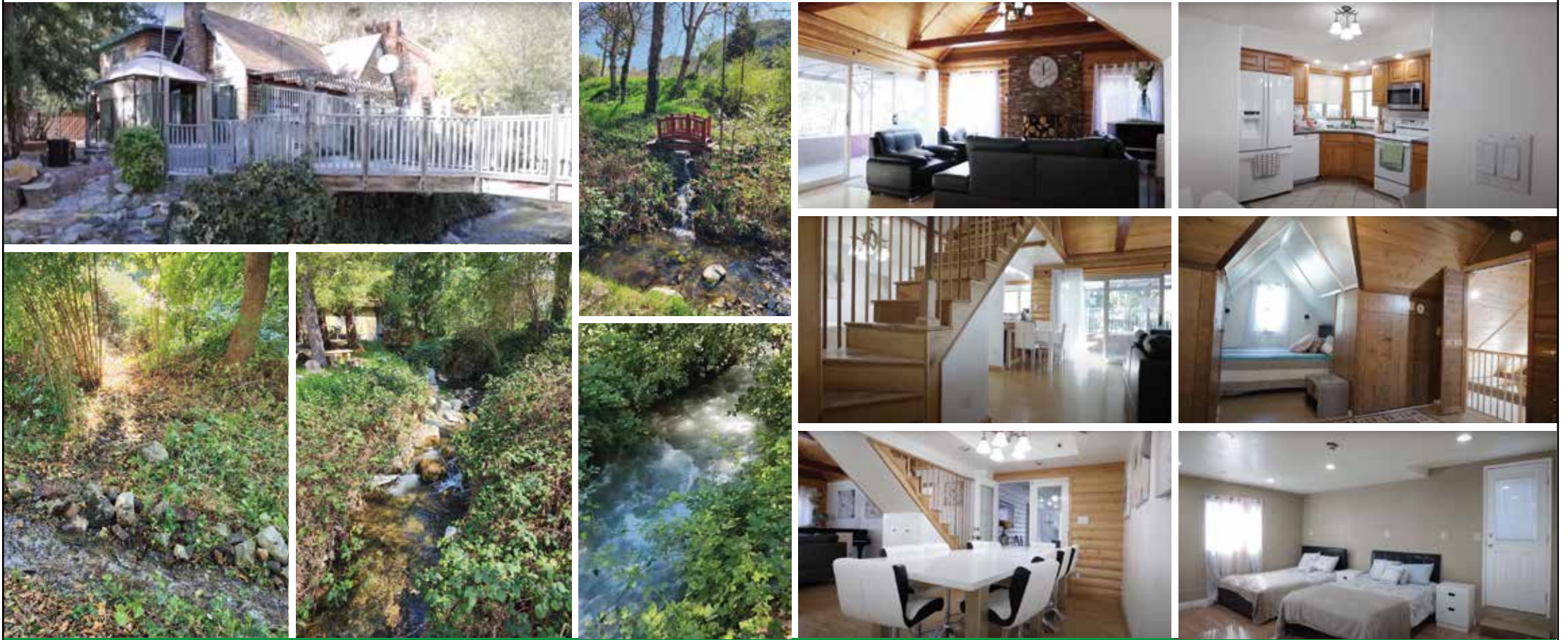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리지우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 가장 좋은 곳에 있는 기도원, 주택, 상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 기도원, 별장으로 적합한 곳

**\$ 1,490,000**

산속 아름다운 동네에 소재한 기도원 또는 별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곳을 소개합니다.  
샌버나디노 국립 공원에 있기에 산속에는 폭포가 있고 집 앞에 계곡이 흐르고 있어 물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집입니다.  
15번 North 시에라 Exit에서 10분 거리여서 주말 별장, 기도원으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K-Kown에서 1시간 거리)



## Senior Town - Torrance Carson, Gardena

**\$ 469,000**

54 Aere 420개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시니어 타운 입니다. 현재 한인 16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며 바닷바람이 시원하고 생활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K-Kown에서 20분, LAX 국제공항과 Beach도 20분 거리입니다.  
HOA가 저렴하고 단지 내에 올림픽사이즈의 수영장, 사우나, 스파, 당구장, 파티룸등이 구비되어 있는 최고의 시니어타운입니다.  
2024년 새집 방 3, 화장실 2, 1600 Sqft



## 상가건물 (South Gate, LA Down Town에서 가까운 거리)

**\$ 2,890,000**

대로 사거리 코너에 있는 단독건물입니다. 주차가 많습니다.  
대지 약 24,000Sqft 건평 약 6400Sqft.

문의 전화 **213-718-8582** 최유화



신앙 에세이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

선교사의 부름을 두고 기도 하면서 처음 중국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만주 별관 한 가운데서 지하교회 청년들을 사 할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작로에서 논길을 한 시간이나 걸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살을 에는 차가운 겨울에 다양한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7시간이나 차를 타고 온 청년도 있었습니다. 버스 창문이 깨져 바람이 새어 들어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얼굴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 고귀한 청년들을 위해 정말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한 시간 설교를 마치고 강단을 내려오는데 누구 한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께 있던 분이 좀 더 말씀을 전해 달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다시 강단에 올라가서 한 시간 더 설교하고 내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훈련을 마치면 자정이 되도록 몇 시간씩 기도하던 사람들, 생애 마지막처럼 예배하던 젊은이들, 그렇게 사흘이 지나면 다시 만날 기약 없이 눈길을 걸으며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하늘을 향해 간구했던 날들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더 고결한 삶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다면 지상에 살아가는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시작입니다.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예배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라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총체적인 삶은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잡석 속에 감추어진 다이아몬드라 해도 어둠이 내리면 반드시 빛이 새어 나오기 마련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 쾌락 등 그 어떤 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넘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로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이런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시고, 예배자로 살아낼 때 우리 영혼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예수님을 빛내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보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씨 주머니”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를 안고 있는 8월이 다가 오지도 이제 석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약속이나 한 듯이 꽃밭에는 피는 꽃보다 지는 꽃들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가는 지는 꽃들, 그 지는 꽃들은 하나같이 작던 크단, 열매를 달고 있든지 씨 주머니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자연의 현상과 모습

을 보며 ‘어쩌면 그리도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에 아주 절제히 순종하고 있나’하는 생각에 머리가 저절로 숙여 집니다. 그리고 늘 경험하고 있는 이런 자연의 현상과 변화 앞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저물어가는 내 인생을 통해 맺어야 할 열매를 제대로 맺어가고 있나? 오는 세대에 생명의 씨를 티끌 복음의 씨앗을 나는 제대로 뿌렸다고, 아니 뿌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그렇게 제 자신의 지난날을 뒤돌아보니 그저 부끄러운 모습들만 제 마음에 다가와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빌 3:15, 16).”



신교편지

멕시코



살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상당히 답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파송 받았던 도미니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 해가 1989년 7월 1일이니 어언 35년이 되었으니 정말 많은 해가 지났네요. 지금은 멕시코에서 여러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감사한 마음은 멕시코 선교만 21년째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멕시코 선교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멕시코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 저의 선교 사역을 통해 수다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길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Florida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교도소 사역, 캐러밴 방문, 판자촌 동네 아이들 교복 구입, 가난한 교회 의사 구입 등 많은 사역에 도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아이티 등 중미의 여러 나라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한 여기 티화나까지 올라와서 -물론 저들의 목표는 미국 입국이지만- 저는 저들의 임시 텐트촌에 가서도 영화 상영을 했었고, 지금의 다른 커다란 거처에 가서도 가끔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올라온 난민들도 만나는데 멕시코 남부에 이미 많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욱 최근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후 부정 선거라며 시끄럽다는데 계속 탈출 러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들도 여기 티화나 난민촌까지 오면 찾아가서 영화 상영을 해야죠.

수가 없습니다.

건축 사역 Covid-19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건축 사역도 하게 하셨습니다. 건축이 중단된 교회, 증축이나 개축이 필요한 교회의 건축을 도왔거나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있지만, 아이들 교실이 없는 교회의 아이들 교실 공사도 했고, 몇 교회의 의자들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교회의 열악한 화장실을 새로 지어주는 공사도 했었는데 이상하게(?) 화장실 공사도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메신저에는 다 쓰러져가는 교회, 건축이 중단된 교회, 새롭게 시작하는 매우 초라한 개척교회에서 도움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국 과테말라로 돌아간 형제의 출석교회도 교회 확장 공사를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여 돕기도 했습니다.

교도소 사역 Covid-19 이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찾아가서 영화 상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 외에 재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팀과 함께 가서 화장지, 비누, 치약, 칫솔, 면도기 등 생필품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매년 겨울철에는 사랑의 담요를 넣어주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교도소마다 수천 명의 재소자들이 수용되어 있으나 멕시코 정부에서는 담요는 물론 생필품도 거의 공급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겨울철에 한인 교회들의 후원으로 멕시코 여러 교도소에 담요를 여보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하여 주는 담요들은 그들이 1년 내내 깔고 덮고 사용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거의 낡아서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마다 몇천 명의 재소자들이 있는데 제가 매년 구입하는 담요 숫자는 몇백 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마다 담요를 구입하여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재소자들을 보면 이 일을 멈출

영화 상영 정말 좋은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다. 최근까지 멕시코에서 823회의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오래전 도미니카 선교사 사역 시 릴로 된 영화 상영 63회를 합하면 886회의 영화 상영이 됩니다. 멕시코의 많은 재활원 형제들과 여러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좋은 기독교 영화들을 상영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본 기독교 영화들이 저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자리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 대해, 신앙생활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들고 중미에도 가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니(?) ‘캐러밴’이라는 이름으로 무리를 지어

기도 제목 1. 미국에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 푸틴의 악욕이 수포가 되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임하기를 2. 영화 상영을 통하여 교도소들에서, 재활원들에서, 캐러밴들 거처에서 많은 형제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 대해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3. 티화나 교도소 내 교회의 천장이 낡아서 뜯어내고 새로 해야 합니다. 4. 계속 요청해오는 교회들의 증축 또는 개축 공사를 잘 도울 수 있도록 5. 저와 아내의 건강을 위해 서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한여름 무더위 가운데 멕시코 최재민 선교사 드림 4mexico@daum.net

www.CKsingles.org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2:18) 한국기독교교인을 위한 Dating Site를 소개합니다 많이 등록해 주세요 \*비영리단체이며 무료로 운영됩니다.

이 Dating Site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대화하고 또 결혼까지 하게되어 좋은 기독교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런지요. 젊은이 뿐만아니라 중년 그리고 돌싱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욕에서 조한진 목사, 이희상 장로 드림 SUPPORTING ORGANIZATION (협력단체)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뉴욕한인회)

사진 공모전



SINGLE CHRISTIAN PHOTOS CONTEST SUBJECT: MY CROSS

QUALIFICATION: Christian Korean Single Adults REGISTRATION: www.CKsingles.org DEADLINE: September 30, 2024 SUBMISSION FEE: \$10



AWARDS: Gold Medal \$2,000 Silver Medal \$500 Bronze Medal \$200 and Many More Prizes



HOST: www.CKsingles.org

Email: cksinglesusa@gmail.com INQUIRY: 516-398-8289 H. Lee 646-369-7124 Chris Cho